

[1주차]

1. 그리스 신화의 기원 및 신들의 탄생

[학습개요]

- ▶ 그리스의 대서사시인들
- ▶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들
- ▶ 로마 시대의 신화 작가들
- ▶ 카오스(Chaos)와 티탄(Titan)신족들

우리는 그리스 신화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알아볼 것이다. 그리스 서사 시인들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그리고 아폴로도로스의 작품과 그리스 비극 작품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물론 후대에 첨가되고 각색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위에서 말한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들을 신화의 원전이라고 부른다. 로마 시대의 오비디우스도 물론 중요한 작가로서 서양의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저술을 남겼다.

그리고 우리는 신화 속에서 우주의 형성 및 신들의 탄생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제우스 신에 앞서 세상을 지배했던 신들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다. 특히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그의 여섯 아들 그리고 그 여섯 아들 중 막내인 크로노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주가 형성된 이후 처음에 우라노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후 막내아들 크로노스로 지배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상의 신이며 최고의 신으로 알고 있는 제우스는 바로 크로노스의 아들이다.

1.1 그리스 신화는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가) 그리스의 대 서사시인들

- 호메로스(Homer)의 『일리아스(Ilias)』와 『오딧세이아(Odyssseia)』

구전되어 오던 그리스 신화가 처음 문자로 기록된 것은 기원전 8세기경이다. 호메로스(Homer)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가 그것이다.

영웅시대의 절정을 이루는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문학 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풀어내고 있다. 19세기 말에 독일의 고고학자에 의하여 실제로 트로이아의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신화와 역사 간의 경계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 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연 신화는 완전한 허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는 말이다. 신화 이후 역사가 시작된다면, 이것들은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데, 트로이아의 경우 를 보면, 그 역사의 현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화의 허구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트로이아 전쟁은 실존했고, 이 전쟁 과정에서 영웅들의 활약상을 보다 극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의 존재가 이 전쟁 이야기에 개입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화는 신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의 삶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사에 대한 기반이 되는 상상력의 소산일 것이다. 우리가 신화라는 의미의 뮈토스(mythos)는 논리적 사고인 로고스(logos)와 상반되 는 것이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로고스를 중시하면서 신화를 규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가 우주 체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신화와 역사 혹은 신화와 철학 적 사고를 구분하고 싶었던 것이다. 플라톤이후 제기된 신화에 관한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호메로스의 작품은 수 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지금도 그리스 신화의 최대의 걸작으로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 1-0]

19세기 프랑스 화가 앵그르의 이 그림은 호메로스를 예찬하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들 뿐 아니라, 그리스 인들로 부터 둘러싸인 채 그는 자신이 되살린 신화 의 위대함으로 축복받고 있는 듯합니다.

● 헤시오도스(Hesiodos)의 『신통기(神統記) *Theogonia*』와 『노동과 나날』

그 다음으로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노동과 나날』이 있다. 호메로스의 작품이 트로이아 전쟁을 바탕으로 한 시적이면서 장대한 서술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헤시오도스의 서사시는 우주의 기원과 신들의 전쟁, 인간의 출현 및 신들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신통기』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와 인류 최초의 여인인 판도라의 신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기도 하다.

『노동과 나날』은 황금시대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일 뿐 아니라, 그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여러 가지 도덕적 실천적 교훈을 담고 있는 교훈시로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를 넘어서서 서양 교훈 문학의 효시가 된 작품이다.

● 아폴로니오스(Apollonios)의 『아르고나우티카 *Argonautika*』

트로이아 전쟁과 함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로 간주되는 영웅 이아손과 아르고 호 원정대의 모험 신화는 기원전 3세기 경 작가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나우티카 *Argonautika*』 (우리말로는 “아르고호의 모험”으로 번역되어 있다)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책은 헬레니즘 초기인 기원전 250년 경에 쓰여진 것을 알려져 있는데, 아르고호의 출발 과정, 항해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영웅 이아손이 황금 양피를 찾을 때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아르고 호의 귀로에 일어나는 온갖 모험 등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명작이다.

●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의 『도서관 *Bibliothēke*』

또 하나의 중요한 신화 원전으로 기원전 2세기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의 『도서관』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본래 『아테나이 출신 문법학자 아폴로도로스의 도서관』으로 되는데, 흔히 ‘도서관’ 즉 ‘Bibliothēke’라고 부른다.

도서관이라는 의미는 여러 책들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 안내서 혹은 소백과사전이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명칭에 어울리게 이 책은 신화의 주요 원전들을 섭렵하고 있으며, 또한 신화의 주요 사건들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그리고 비극 작가들의 작품이 주요 출전이며,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신화를 공부할 때 이 책은 필독서라고 말할 수 있다.

나) 그리스의 3대 비극작가들

이런 서사시들이 신들과 영웅들의 그야말로 영웅적인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과 인간들의 문제와 인간 운명의 비극적 성격은 기원전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은 그리스 비극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들을 우리는 그리스 3대 비극작가라고 일컫는다. 이 작품들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고통과 인간 사랑의 의지,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 운명의 극단적 비극성, 오이디푸스의 자녀인 안티고네와 오레스티아의 가족의 죽음 앞에 선 인간의 행동, 조국이나 사랑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여인 메데이아의 정신적 갈등과 그녀의 비극적 삶 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아이스퀼로스(Aischylos)의 비극

대표적인 작품으로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테바이를 공격하는 일곱 사람』

이 있으며,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현존하는 유일한 비극 3부작인 『오레스테이아(Oresteia)』가 유명하다.

『아가멤논』, 『제주(祭酒)를 바치는 여인들』, 『자비로운 여신들』로 이루어진 이 3부작은 트로이아 전쟁에서 승전한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피살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담고 있다. 우리가 14주차 강의 ‘트로이아 전쟁’에서 상세히 배우겠지만, 이 작품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아가멤논이 불륜에 빠진 부인에 의하여 피살당하는 장면과 아들 오레스테스가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와 어머니의 정부를 살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이후의 신화를 인간 비극성에 초점을 맞추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작이다.

● 소포클레스(Sophokles)의 비극

소포클레스는 7개의 작품이 현존한다. 그 중에서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는 테바이 왕가에 관련된 신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테바이의 왕 오이디푸스의 극단적 비극성과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의 비극적 운명을 말해 주고 있는 소포클레스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엘렉트라』에서 아가멤논의 자녀들인 오레스테스와 엘렉트라가 어머니와 어머니 정부에 대하여 복수하는 장면을 매우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

●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비극

『메데이아』, 『엘렉트라』, 『히폴뤼토스』, 『헬레네』, 『트로이아의 여인들』 등 다수가 있다. 그리스 영웅 이아손의 부인으로서 동생과 친자식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덫에 빠진 여인 메데이아를 그린 작품 『메데이아』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다) 로마 시대의 신화 작가들

로마시대로 넘어오면, 그리스 신화가 로마신화로 채색되고 신들의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뀐다. 이런 작업은 오비디우스(Ovidius)와 베르길리우스(Vergilius)에 의하여 주도된다. 사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지만, 로마 신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리스 신화의 각색이기 때문이다. 로마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그리스 신화를 자신들에 맞게 만들어 나간 것이다.

● 오비디우스(Ovidius)의 『변신이야기』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는 걸작으로 평가되며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작가 및 예술가들의 필독서로서 그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갖다 준 작품이다. 오비디우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문학적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이 있는 반면 상당 부분 창작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의 원전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결국 신들의 계보나 그 관련 이야기의 정통성은 헤시오도스나 아폴로도로스 같은 그리스 서사시인의 작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아에네이스』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는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이어 받아 트로이아 전쟁 유민인 아이네이아스를 이탈리아 라틴 평원으로 이주시키면서, 아이네이아스를 그리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인간 안키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즉 로마인의 조상을 그리스 신화의 으뜸 신 족보에 넣으려는 로마인의 시각으로 신화를 그려낸 작품이다.

라) 그리스 신화의 2차 혹은 3차 텍스트들

우리는 위에 나열한 그리스 신화의 원전들 혹은 그 기록의 중요성을 평가받은 작품들 중심으로 신화를 재구성하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특히 신들과 영웅들의 사랑이야기가 신화의 중심 테마임을 확인하면서 강의의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전 이외에 참고한 책들은 19세기 신화학자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으며, 우리나라 신화 관련 서적은 대개 이 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화 작가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2,3권』과 윤일권, 김원익이 지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문화』가 본 강의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2 카오스(Chaos)와 티탄(Titan)신족들

가) 카오스(Chaos)에서 천지가 창조되다

이제 신화속의 천지 창조 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신화의 천지창조가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지만, 신화의 신들은 그렇게 모든 생명체와 물질들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화에서는 유일신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즉 하늘, 땅, 바다와 같은 존재나 물질들을 나타내는 신들이 존재하여 그들로 부터 보다 구체적

인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고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신들의 공동 작업으로 천지는 창조되었으며, 어느 경우는 스스로 창조되어 신의 호칭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들이 나타나기 전의 세상을 어땠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것을 혼돈 혹은 무질서로 해석되는 카오스라는 말로 규정합니다.

● 카오스는 혼돈인가 최초의 공간인가

원래 세상은 바다도 땅도 만물을 덮은 하늘도 없었고, 온 우주를 둘러보아도 그저 막막하게 퍼진 펄펄짐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 막막하게 퍼진 것을 카오스(혼돈)라고 하는데, 형상도 질서도 없는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했다. 생명이 없는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로 굳어지지 못한 모든 요소가 구획도 없이 서로 뒤섞여 존재하는 상태일 뿐이었다. 대지와 바다와 공기를 이루는 요소가 있지만, 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카오스가 이렇게 혼돈의 의미로 쓰인 것은 로마 작가 오비디우스 이후이고 그리스 최초 신화작가인 헤시오도스는 “맨 처음 생긴 것이 카오스”라고 말하면서, 뒤에 생겨날 우주가 들어갈 공간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카오스에 대한 견해는 오비디우스를 따르고 있지만 그 후 신들의 생성 과정은 모두 헤시오도스의 작품을 통하여 알게 된다.

● 카오스에서 최초의 신들이 나타나다

서로 혼재되어 그 무엇도 뚜렷이 형성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요소들보다 훨씬 빠어난 ‘자연’이라는 신이 있었다. 신화에서는 자연을 최초의 신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자연이라는 신은 하늘로 부터는 땅을, 땅으로 부터는 물을, 대기로 부터는 또 맑은 하늘을 떼어놓았다. 즉 서로 뒤섞여 있던 물질들이 어느 힘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헤시오도스에 따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카오스에서 암흑의 신 에레보스(Erebos)와 어두운 밤의 여신 닉스(Nyx) 남매가 태어났고, 이들이 결합하여 대기의 신 아이테르(Aither)와 낮의 여신 헤메라(Hemera) 남매가 생겨난 것이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Gaia)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Uranos)와 결합하여 12남매를 두게 된다. 바야흐로 신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림 1-1]

나) 우라노스의 여섯 아들은 누구인가-티탄 신족들의 가계도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12남매를 우리는 티탄 신족, 즉 거신 족이라 부르며 나중에 등장하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들과 구분한다. 여기서 티탄신족들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섯 아들을 중심으로 그 족보를 따져볼 텐데, 우리는

이 여섯 아들과 그들의 주요 자손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화 이야기에서 이 족보는 늘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 첫째 아들; 오케아노스(Okeanos)

대양, 큰 바다의 신인데, 누이 테튀스(Thethys)와 짝을 이루어 3,000개의 강의 신들과 3,000명의 강의 요정들이 생긴다. 그 중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는 25개의 강 이름과 41개의 요정들의 이름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다. 이 요정들 중에서 우선 메티스(Metis)와 스틱스(Styx)를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 둘째 아들; 코이오스(Koios)

누이 포이베(Phoibe)와 짝을 지어 아스테리아(Asteria)와 레토(Leto) 두 딸을 얻는다. 레토는 나중에 제우스와 짝을 지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쌍둥이를 낳는다. 레토의 쌍둥이 자식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지속적으로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세째 아들; 크레이오스(Kreios)

여신 에우뤼비에와 혼인하여 별들의 신 아스트라이오스와 지혜의 신 팔라스를 낳는다. 팔라스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다. 뒷날 팔라스는 제우스의 딸인 아테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로써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 지위를 물려받고, 종종 ‘팔라스 아테네’ 혹은 ‘팔라스’라고 불린다.

● 네째 아들; 뢰페리온(Hyperion)

누이 테이아(Theia)와 짝을 지어 태양신 헬리오스(Helios), 달의 여신 셀레네(Selene) 그리고 새벽의 여신 에오스(Eos) 3남매를 얻는다.

[그림 1-3]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은 Guido Reni의 작품으로서 중앙에 등을 지고 있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헬리오스의 황금마차와 함께 새벽하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1-4]

푸생의 이 그림을 보면, 하늘에 헬리오스가 끄는 황금마차가 지나가고 있고 지상에는 그 태양빛으로 꽃이 피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처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신과 달의 여신 자리는 나중에 제우스의 자식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넘겨주게 된다. 티탄 시대가 끝나고 제우스의 시대가 열릴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

● 다섯째 아들; 이아페토스(Iapetus)

이치의 여신 테미스(Themis)와 짝을 지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에피메테우스(Epimetheus), 아틀라스(Atlas)가 바로 그들이다.

[그림 1-5]

프로메테우스의 어머니가 테미스라는 것은 아이스퀼로스의 비극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 나옵니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아틀라스라는 이름은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우리가 책이나 영화의 서문 혹은 서막을 ‘프로로그(prologue)’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프로’는 앞서 나온다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또한 이야기가 다 끝난 후 나오는 장면을 에필로그(epilogue)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피’는 나중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죠. 따라서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아는 자’라는 뜻이고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 프로메테우스는 선각자이고 예지자입니다. 이 중요한 신,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상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 여섯째 아들; 크로노스(Kronos)

‘시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누이인 레아(Rhea)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림 1-6]

올림포스의 12신들은 모두 이 크로노스의 자손들이다. 제우스(Zeus), 헤라(Hera), 포세이돈(Poseidon), 하데스(Hades), 데메테르(Demeter), 헤스티아(Hestia) 등 여섯 신들은 크로노스의 자식들이고,

[그림 1-7]

제우스의 자식들인 헤파이스토스(Hephaistos), 헤르메스(Hermes-아틀라스의 딸 마이아와 제우스 사이의 아들), 아폴론(Apollon-레토와 제우스의 아들), 아르테미스(Artemis-레토와 제우스의 딸), 아테네(Athena-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채 태어난 지혜와 전쟁의 여신) 그리고 아레스(Ares-정식부인인 헤라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등 나머지 여섯 신이다. 올림포스(Olympus)의 12신들을 따질 때, 가정과 부

역의 여신인 헤스티아가 빠질 때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 혹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Dionysos)가 12신에 들어간다.

살림을 맡는 헤스티아가 빠질 때, 사랑과 술, 즉 주색이 개입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주색에 탐닉하면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신화의 가르침이 아닌가도 한번 짚어봅니다. 실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그 쪽 방면으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음탕한 사랑과 광기어린 포도주 축제는 신화에서 아주 유명하고 신화 속 여러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기독교나 불교의 유일신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모든 선과 악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신들입니다.

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르다

● 가이아의 음모와 아들 크로노스

우라노스는 위의 12 자식들만 낳은 것이 아니다. 외눈박이 퀴클로페스(Kyklopes) 3형제, 손이 백 개이며 머리가 오십 개인 괴물 헤카톤케이레스(Hekatoncheires) 3형제도 모두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끔찍한 형상에다가 또 망나니라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형과 누이들인 거신 12남매들에게 행패도 부렸다. 이에 골치를 썩던 아버지 우라노스는 이 자식들을 땅 속 아주 깊고 컴컴한 무한지옥인 타르타로스(Tartaros)에 가두어 버렸다. 대지의 깊은 곳이란 어디 인가? 바로 대지의 여신인 어머니 가이아의 뱃속이다. 이들이 이 무한지옥 안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견딜 수 없던 가이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괴물들은 내가 바라지 않던 자식들이다. 남편 우라노스를 놔두면 또 나에게 덤벼서 이런 자식의 씨를 뿌릴 테니, 아예 그런 생명의 씨를 내 몸에 뿌리기 전에 그 근본을 잘라 버리자”.

이렇게 결심한 후, 땅 속에서 무쇠 덩어리 하나를 꺼내 낫 한 자루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거신 12 자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림 1-8]

“너희들 아버지는 바라지도 않던 자식을 낳게 했고, 이들을 내 뱃속 깊은 곳에 가두어 놓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늘의 신이니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고 그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는데, 누가 이 낫을 들어 이 어미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다들 무서워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막내아들인 크로노스가 나서 제 손으로 부끄러운 아버지를 처단하겠다고 용기 있게 말했다.

“어머니, 이 일은 내가 맡아 완수하겠습니다.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못된 짓을 했으니깐요”

● 크로노스에 의한 우라노스의 거세

크로노스의 말을 듣고 가이아는 기뻐하며 그에게 낫을 쥐어주며 자신의 계락을 알려 주었다. 이들은 낫의 신 헤메라가 떠나고, 밤의 신 닙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밤이 되자 우라노스가 거대한 몸짓으로 나타나 욕정에 사로잡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몸을 감싸며 덮쳐왔다.

[그림 1-9]

사랑의 행위를 하려 우라노스의 성기가 가장 팽팽하게 부풀었을 때, 크로노스는 은신처에서 나와 아버지의 성기를 잡고 날카로운 낫을 들어 그것을 잘라버렸다. 놀란 우라노스는 몸을 일으켜 크로노스에게 저주의 말을 던지면서 저 높은 곳으로 달아났다.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흘러나온 핏방울들이 땅에 떨어져 가이아의 여신 몸속으로 스며들어 복수의 여신 에리倪에스(Erinyes) 3 자매와 거인족 기간테스(Gigantes)가 태어난다.

●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태어난 미의 여신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성기와 핏방울들은 바다 거품과 어우러져 애욕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를 생산한다. 아프로디테는 ‘거품(Aphros)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런 탄생을 형상화한 보티첼리의 유명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다.

[그림 1-10]

여러분들이 미의 여신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여신인데, 비너스라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로마식으로 읽으면 베누스(Venus)가 될 것입니다. 비너스는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지요.

[그림 1-11]

여기 동상의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흔히 우리가 <밀로의 비너스>라고 부르는 작품입니다. 루부르 박물관에 전신되어 있는 이 동상앞에는 늘 관람객들이 많아 모여 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신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합니다. 아름다운 아프로디

테를 놓고 올림포스의 으뜸신들 끼리 서로 다투기도 했고, 아프로디테 자신은 나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필히 개입하여 신들 혹은 영웅들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켜 주요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거나, 영웅들의 위대한 과업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아프로디테에 관해서는 강의의 결론으로 맨 마지막 주에 상세하게 공부할 것이고, 여기서는 아프로디테가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우선 간단히 언급하고 몇 가지 관련 그림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1-12]

아프로디테는 순수한 아름다움 혹은 열정적인 육체적 사랑 등 여러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동상은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는 욕정의 화신으로 아프로디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13]

이 그림은 아들 에로스가 거울을 들고 있고 아프로디테가 아들 에로스가 들고 있는 거울을 바라보고 몸치장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14]

이 동상은 목욕을 하고 있는 아프로디테의 모습입니다. 욕정의 여신다운 멋진 육체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라) 인간들은 크로노스(Kronos)의 황금시대를 살다

● 무한 지옥에 갇힌 우라노스

아들에 의하여 성기가 잘려나간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더 이상 대지에 가까이 오는 일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하여 하늘과 땅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라노스가 쫓겨난 이후 크로노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크로노스의 세상과 함께 인간들에게 황금시대가 시작되었다.

● 황금시대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는 관리도 없고 법률도 없었다. 인간들은 정의로웠고 모든 것은 넉넉하였다. 도처에 우유의 강과 신들이 마시는 술 넥타르(nectar)의 강이 흘렀고, 나무 가지는 시도 때도 없이 꿀을 떨어뜨렸다. 칼도 무기도 필요 없고, 전쟁도 없었다. 기후는 늘 봄이었고, 서풍은 그 부드러운 숨결로 씨 뿌린 일도 없는 들판에 꽃을 만발케 하였다.

[그림 1-15]

신의 축복 속에 가족의 무리도 많았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 이후 천상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군림하는 크로노스의 지배 하에서 인간들은 그 어떤 고통이나 궁핍함, 또는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신들과 같은 삶을 영위했다. 인간들은 신들과 달리 유한한 목숨이지만,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기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잠을 자듯이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제우스에 의하여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무한지옥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이다.

[심화 학습]

우리는 위에서 언급된 신들 중 몇몇 신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더 공부하기로 하자.

● 휘페리온의 아들, 태양의 신 헬리오스

태양 마차를 끄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는 아내 페르세이스(오케아노스와 테튀스의 딸)에서 키르케(Kirke), 아이에테스(Aietes) 그리고 파시파에(Pasiphae)를 낳는다. 키르케, 아이에테스, 파시파에, 이 이름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키르케와 아이에테스는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에서 나오고, 파시파에는 크레테의 왕비로 황소와의 간음을 통해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는 여인이다.

● 휘페리온의 딸, 새벽의 여신 에오스

새벽의 여신이라는 에오스는 우리가 위의 그림에서 이미 본 것처럼, 장미 빛 손가락으로 헬리오스의 태양마차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새벽의 여신이다. 그녀는 아스트라이오스와 결합하여 서풍의 신 제퓌로스(Zephyros), 북풍의 신 보레아스(Boreas)와 남풍의 신 노트스(Notos)의 어머니가 된다.

[1-16]

그런데, 에오스는 제우스의 아들인 전쟁의 신 아레스(Ares)와 동침하다가 그를 사랑하는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사서 음란증에 걸리게 된다. 이 그림은 에오스가 미남 청년 케팔로스를 사랑하다가 결국 그를 납치한 후, 사랑에 겨워 바라보는 모습이다. 에오스의 벗은 상반신이 매우 섹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떨어진 피에서 태어난 에리倪에스 3 자매

에리倪에스 3 자매는 특히 가족 간의 살해가 일어났을 때 지하에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뱀을 들고 나타나 그 살인자를 응징하는 무서운 복수의 여신들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족 살해는 자주 일어나는 테마이다. 이 에리倪에스 3자매는 결국 올림포스 신들 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제우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흔히 손에는 횃불과 회초리를 들고 있고 머리털은 뱀들로 이루어져 있는 날개 달린 모습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림 1-17]

그들은 지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머물고 있다가 피해자가 부르면 나타나 응징합니다. 이런 복수의 여신 에리倪에스가 우라노스의 피에서 태어난 것은 아들 크로노스에 의한 가족 간의 핏 싸움을 응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 정리]

우리는 이번 첫 주에 신화의 원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최초의 신들의 세계는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배웠다. 즉 올림포스 산에서 세계를 지배할 제우스 신 이전의 신화를 공부한 것이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신화가 언어로 고착된 것은 기원전 8세기 서사시인인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이고, 이들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화의 주요 인물들에게 비극적인 성격을 부여시킨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은 그리스 문학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모든 나라에는 선사시대를 말해주는 신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리스 신화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신화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신화가 21세기의 현재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신화작가들의 문학적 성취에 힘입은 바 크다.

혼란이라는 의미의 카오스에서 자연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나뉘지고 밤과 낮이 생겨나고, 이것들에 신들의 속성이 부여되면서, 신화의 세계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 12신들이 태어나고, 그 중 크로노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순서로 신화 속의 시간을 흐른다. 그리고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동안 황금시대가 계속되었다. 이제 다음 주 우리의 신화 공부는 제우스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학습 평가]

▶ 그리스 3대 비극 작가가 아닌 사람은?

1) 오비디우스 2) 아이스퀼로스 3) 소포클레스 4) 에우리피데스

답) 1번 오비디우스

▶ 아버지 우라노스의 성기를 낫으로 베어버리고 세계의 지배권을 획득한 아들은 누구인가요?

1) 휘페리온 2) 크로노스 3) 프로메테우스 4) 아폴론

답) 2번 크로노스

▶ 다음 4명의 신들 중에서 올림포스 12신에 들어가지 않는 신은 ?

1) 헤르메스 2) 에오스 3) 헤라 4) 헤파이스토스

답) 2번 에오스

[2주차]

2.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

[학습 개요]

- ▶ 크로노스를 물리치는 제우스
- ▶ 티타노마키아(티탄신족과의 전쟁)와 제우스
- ▶ 기간테스(거인)와의 전쟁과 제우스의 세상 지배

은의 시대는 황금시대만은 못했지만, 다음에 올 청동시대보다는 나았다.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저 암흑의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놓고, 티탄신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제우스의 시대가 열리고 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우스 신은 왜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크로노스를 심판하고,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티탄신족과의 전쟁 그리고 기간테스와의 전쟁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지난주에 배웠던 황금시대와 제우스가 지배하면서 열린 은의 시대 이후 도래하는 청동시대, 영웅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다.

2.1 제우스와 은의 시대

가) 제우스의 반란

● 자식을 삼키는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하늘의 최고신으로 군림했다.

[그림 2-1]

크로노스가 낫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식에 의하여 거세된 우라노스는 달아나며, 크로노스를 저주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를 거세한 후,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괴물 형제들을 해방시켜주기로 어머니 가이아와 약속을 했었는데, 크로노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

다. 그러자, 가이아 여신은 이렇게 아들 크로노스를 저주한다.

“아비를 내친 자식 또한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

즉 아버지의 성기를 자르고 쫓아낸 크로노스 자신도 자기 아들에 의하여 쫓겨날 것이라는 말이다. 가이아의 이런 예언이 실행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자식이 없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식을 낳는 족족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한 크로노스는 부인 레아로 부터 태어나는 자신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림 2-2]

이것은 고야의 그림으로 자식들 중 한명을 삼켜버리는 크로노스의 괴기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 제우스의 탄생과 도피

레아가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이렇게 5남매를 차례로 낳았지만, 크로노스는 자식들에게 나중에 당할지도 모르기에 그들은 낳는 대로 모두 삼켜 버렸다. 이제 레아는 여섯 번째 아이, 제우스를 잉태했다. 레아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여섯 번째 아이도 태어나면 또 남편 크로노스가 먹어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이 때 자신의 어머니인 가이아 여신에게 상의하자, 가이아 여신은 아기만 한 바윗덩어리를 레아에게 갖다 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바윗덩어리를 아이라고 속이고 크로노스에게 먹게 하라, 그러면 아이는 내가 밤에 빼돌려 다른 곳에서 크로노스 몰래 키우겠다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가이아가 개입하는 것은 크로노스에 대한 가이아의 보복이고, 자신이 말한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화에서 신들의 예언은 그 신의 개입에 의하여 필히 이루어집니다. 신들이나 영웅들이나 인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은 으뜸 신들의 예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2-3]

가이아에 의하여 빼돌려진 아기 제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 제우스는 크레테 섬의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아이가이온 산기슭 동굴에서 산양이란 뜻의 이름을 지닌 요정 아말테이아에 맡겨져 키워졌다. 결국 제우스는 산양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의미이다. 푸생의 이 그림은 이런 신화를 잘 묘사하고 있다. 요정이 어린 제우스에게 산양의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런데 제우스의 울음소리는 하도 커서 멀리 있어도 귀가 밝은 크로노스가 들을까 봐, 아말테이아는 산신들로 하여금 동굴입구에서 방패를 두들겨 제우스의 울음소리가 퍼져 나가는 것을 방해했다.

● 테미스와 제우스

[그림 2-4]

요르단스의 이 그림은 제우스가 산의 현자로 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제우스가 청년이 되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동굴에서 비밀리에 자라나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알게 되었다.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삼킨 5 남매를 되살려낼 방도를 궁리하다가 이치의 여신인 테미스를 찾아간다. 테미스는 우라노스의 12 남매에 속하는 여신이므로, 결국 크로노스와는 남매지간인 셈이다. 테미스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를 접할 때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가를 따지고 재판하는 일을 맡은 중요한 여신인데, 여기서 크로노스를 제거할 방안을 제우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버지 우라노스에 대한 복수일 것이다.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역할일 것이다.

● <티탄>의 의미와 시대 전환의 필요성

제우스 이전의 신들을 티탄 신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티탄은 거인이라는 뜻이지만, 우라노스가 거세되어 쫓겨나면서 크로노스를 티탄이라고 부른데서 기인한다. 원래 티탄은 강패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거인 강패 족들의 세상,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신들의 세상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지니고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인자하게 세상을 통치하는 새로운 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그리스인들의 역사의식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대의 전환은 제우스의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 크로노스를 제거하는 제우스

아무튼 이치의 여신 테미스의 가르침에 따라, 청년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의 시종꾼으로 들어간다. 물론 어머니 레아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일인데, 레아는 가이아의 귀뜸으로, 이 청년이 아들 제우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신들이 먹는 음식인 암브로시아(Ambrosia)와 신들이 마시는 술인 넥타르(nectar)를 바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제우스는 크로노스가 삼켜버린 5 남매를 토해내도록 할 작정으로, 크로노스에게 음식과 술을 올릴 때 마다 토하는 약을 집어넣었다. 거대하고 강한 신이므로 처음에는 끄떡도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약을 먹게 되자, 예전에 삼켰던 자식들을 하나씩 토해냈다. 하데스, 포세이돈,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등이 차례로 튀어 나왔고, 맨 나중에 삼켰던 바윗덩어리도 토해 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토해내서야 크로노스는 정신이 들어 아들 제우스를 알아보고 결국 제우스에게 모든 것을 맡긴 후 대지의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갇히고 만다. 크로노스란 ‘시간’이란 뜻이다.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시간에 따

른 생명체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그의 자식들은 다시 살아났으므로 시간에 의한 소멸 상태를 극복하여 영생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원래 제우스는 맨 나중에 잉태된 자식이지만, 이렇게 먼저 태어난 5남매가 아버지 뱃속에 있다가 다시 갓난아기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 제우스는 가장 큰 자식인 셈이 되었다. 일단 제우스의 반란은 성공하였다.

[그림 2-5]

푸생의 이 그림은 크로노스가 헬리오스에게 태양마차를 끌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크로노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6]

반면 시몬 부에가 그린 이 그림은 여신들에 지배되고 쫓겨나가는 크로노스의 비참한 말로를 그리고 있다. 크로노스는 그의 아들 제우스에 의하여 권좌에서 밀려났고,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2.2 티타노마키아(거신족과의 전쟁)와 제우스 3형제

가) 제우스 형제들의 세계 분할 지배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놓고 올림포스 산꼭대기에 천궁을 지었다. 여기서 제우스의 형제들이 세력을 키워나갔다. 제우스는 우주를 세 공간으로 나누어 자신이 제일 꼭대기에 앉아 천상의 신이 되고, 중간에 땅을 감고 있는 바다는 포세이돈에게 맡기며, 맨 아래에 있는 지하의 세계는 하데스에 주었다. 즉,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정에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천상의 대신(大神)이 되며, 포세이돈은 바다의 주신(主神), 하데스는 지하세계인 저승의 주신이 되는 것이다.

[그림 2-7]

천장에 오일로 페인트한 이 그림은 카라바지오의 작품이다. 지구와 같은 둥근 원위에 제우스와 삼지창을 들고 있는 포세이돈이 있고 그 아래에 지하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있다.

● 신들의 계층 : 대신과 주신 그리고 아신(亞神)과 종신(從神)

여기서 대신, 주신하는 것은, 신들의 일종의 직위를 가리킵니다. 신들에게는 4단계 계층이 존재하는데, 대신과 주신 그리고 아신(亞神)과 종신(從神)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자가 아닌 순수 우리말로 칭할 때는 3단계로 나뉘는데, 대신과 주신을 합하여

으뜸 신, 아신을 버금 신, 종신을 딸림 신이라고 한다. 올림포스 12신들은 모두 으뜸 신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수많은 신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버금 신과 딸림 신에 속한다. 즉 아신 혹은 종신이다. 자, 이렇게 제우스를 비롯한 세 명의 형제가 우주를 나누었는데, 자매들은 무엇을 맡았을까? 헤스티아는 살림을 맡는 부엌의 여신이며, 데메테르는 먹을 것을 생산하는 곡물의 여신 그리고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 되어 정식 결혼의 수호여신이 된다.

● 티탄 족들의 반격

우리는 이 제우스 6남매의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나누어 갖고 그 지배권을 키워나가는 제우스 형제들을 보고, 티탄 신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이들은 힘을 모아 올림포스 신들을 물리쳐 다시금 자신들의 세상을 쟁취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제우스에게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번 휘둘러 불벼락을 일으킴으로써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제우스의 불방망이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는 바다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포세이돈의 삼지창, 이런 무기들을 제우스와 포세이돈이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이다. 제우스가 세상과 다른 신들을 제압하면서 완벽하게 통치할 시대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은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무지막지한 거신 족들이 공격해 오면 제우스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나) 티타노마키아(거신족과의 전쟁)를 대비하는 제우스 3형제

● 제우스에게 지혜를 주는 데미스

이 때 이치를 주관하는 여신 데미스가 제우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 무한지옥인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는 우라노스의 괴물 자식들인 외눈박이 퀴클로페스 3형제와 손이 백 개인 백수거인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를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아버지 우라노스에 의하여 무한 지옥에 갇혀 있는 이 괴물 자식들은 아버지를 거세한 크로노스에 의해서도 풀려나지 못한 채 깊고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족들인 티탄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복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데미스 여신은 손재주가 좋은 이들을 타르타로스로 부터 구출해 주고, 엄청나게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 받으면 티탄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 퀴클로페스 3형제의 도움을 받는 제우스 3형제

그렇다면 제우스는 그 괴물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들이 있는 무한지옥, 타르타로

스는 어디인가? 대장간에서 달군 쇠붙이를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만들 때, 밑에 대고 있는 무쇠덩어리가 있다. 즉 망치 받이가 있는데, 이를 우리말로 모루라고 부른다. 이 무쇠덩어리 모루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타로타로스는 이런 모루가 아흐레 동안, 즉 9일 동안 계속 떨어져야 달을 수 있는 땅 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무한 지옥이니,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른 계산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우스는 그곳에 단숨에 달려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하고 테미스 여신의 말대로 그들로 부터 무기를 만들어 받는다. 퀴클로페스 3형제로 부터는 각각 천둥과 번개와 벼락을 만들어 받는다. 퀴클로페스란 ‘둥그런 외눈박이들’이라는 뜻이다. 외눈박이 3형제는 또 포세이돈에게 거대한 삼지창을 만들어준다.

[2-8]

이 삼지창만 있으면 구름과 폭풍우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바다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저승의 신 하데스는 외눈박이 거인들이 키네에(Kyne)라는 투구를 마련해 주었는데, 이것을 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 티타노마키아에서 승리하는 올림포스 신들

● 제우스의 전지전능

다행이 이렇게 제우스의 형제들이 전쟁 준비를 완결하고 났을 때, 티탄 신족들과의 전쟁이 터진다. 티탄 신족들이 올림포스 산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들의 거처인 오르튀스 산을 내려올 때 제우스는 그들에게 연거푸 벼락을 던졌고, 그들이 산 위로 다시 피신하자, 하늘 꼭대기에 있던 백수거인 3형제가 백 개의 팔들을 이용하여 거대한 바윗덩어리를 무수히 던져서 그들을 산채로 묻어버렸다. 무서운 소리는 끝없는 바다를 뒤흔들고, 대지는 외마디 소리를 치고, 넓은 하늘은 신음하며 전율하고, 티탄 신족들의 돌진은 저 깊은 타르타로스까지 떨게 만든 그야말로 거의 우주가 부서져 나갈 정도의 큰 전쟁이었다. 하데스는 엄청난 수의 거대한 돌무덤 속에 묻힌 티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의 세계에 가두었고, 포세이돈은 큰 물줄기를 일으켜 이 저승 주위에 강을 흐르도록 하였다. 헤시오도스는 공격하는 티탄 족들에 대한 제우스의 무서운 반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제 제우스께서 더 이상 당신의 힘을 억제하지 않으셨으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슴이 곧 노여움으로 가득 차자 당신의 힘을
모두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동시에 하늘과 올림포스에서 오셔서
쉴 새 없이 번개를 치시자, 벼락들이 천둥과 전광과 함께
그분의 억센 손에서 잇달아 날았다. 신성한 화염을 빙글 빙글 돌리며.

그러자 사방에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대지가 불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광대한 숲이 사방에서 소리쳤다.
온 대지와 오케아노스의 흐름들과 추수할 수 없는 바다가
끓어올랐다. 뜨거운 돌풍이 지하의 티탄족을
에워싸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화염이
신성한 대기에 달았으며,
그들이 비록 강력하기는 하지만 벼락과
번개의 성광은 그들을 눈멀게 했다.
무시무시한 열기가 카오스를 채웠다.”

[2-9]

프렝켄의 이 그림은 포세이돈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 것 같다.

[2-10]

푸생의 이 그림은 포세이돈의 승리에 찬 환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티탄과의 전쟁에서 제우스 3형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티탄이면서도 제우스를 도운 그 괴물들이 아니었다면, 제우스가 쉽게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티탄신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 괴물들은 배신자인데, 배신자는 늘 내부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법이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라) 제우스의 완벽한 세계 지배

● 사계절의 세상

이제부터 신화는 모두 제우스로 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지배권이 제우스 대신에게 완벽하게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제우스는 늘 봄이던 계절을 나누어 네 계절로 만들었다. 온화한 서풍(Zephyros, 제퀴로스)만 불던 시대가 아니라, 북풍(Boreas, 보레아스)도 불어 물이 얼어붙고 혹한이 오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대기가 메말라 불뿔더위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곡물의 여신인 데메테르의 선물인 씨앗이 뿌려지고, 소가 코뚜레에 꿰여 신음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말하자면, 지구의 대기 변화로 현재처럼 4계절이 생겨났고, 농경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신화를 지구의 지질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맞추어 설명할 수는 없으나, 헤시오도스나 오비디우스 같은 작가들은 우주의 창조에서 부터 그들이 살던 시대에 이르기 까지 구전되어온 신화와 상식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동의 시대

은의 시대 이후에는 청동의 시대가 온다. 오비디우스는 『변신이야기』에서 이 시대의 인간은 은의 시대보다 성격이 더 거칠어 더러 무기를 잡고 싸움도 했으나 그렇다고 흉악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을 보면 이 시대는 제우스가 물푸레나무에서 창조한 청동의 종족이 살던 때였고, 이들은 앞선 종족들과 달리 거칠고 사나웠다고 말한다. 끔찍하게 생긴 이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잔인한 임무를 수행하며 악행을 저질렀으며 농작물을 전혀 먹지도 않았고 쇠처럼 단단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곧 배우게 되겠지만, 제우스가 대홍수로 인류의 아버지 데우칼리온(Deukalion)과 그 부인 뤼라(Pyrrha)만 남기고 모두 절멸시킨 것은 이 청동 종족을 멸망시키려 한 심판이라고 말한다. 헤시오도스는 이 대홍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폴로도로스 등 후대의 신화작가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 철의 시대

이 천박한 금속의 시대에 오자, 인간들 사이에 악행이 꼬리를 물고 자행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순결, 정직, 성실성 같은 덕목을 기피하고 오로지 기만과 부실과 배반과 폭력과 탐욕만을 좇았다. 사사로운 싸움은 전쟁으로 번졌다. 약탈하여 먹고 사는 자들도 생겨났고,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여 증오하며, 형제들 간에 다정한 우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부부들도 상대가 죽기를 기다렸고, 아비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도 아비가 죽기를 목 놓아 기다렸다. 계모는 독초를 찌어 독약을 만드는 사악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신들도 세상을 떠나가 버렸다. 특히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머리를 풀고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더 이상 정의는 없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자, 제우스가 거처하는 올림포스 산의 천궁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였다. 우라노스의 핏방울이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몸속에 스며들어 태어난 거인 기간테스가 천상에 군림하려고 올림포스 산정으로 높은 산을 쌓아가며 달려들었다.

● 기간테스와의 전쟁

기간테스와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기간테스가 오싸 산 위에 펠리온 산을 겹으로 쌓아 올려놓고 제우스의 천궁을 공격하려 했을 때, 제우스는 벼락방망이로 불벼락을 쳐서 그 산들을 무너뜨렸고, 거대한 거인 기간테스는 펠리온 산 밑에 깔려죽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기간토마키아(Gigantomachia)라고 부른다. 그들이 흘린 피가 대지로 스며들어 또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기도 했는데, 이 피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기간테스보다 나을 것도 없었다. 아주 흉포하고 잔인한 족속이었다.

[심화 학습]

● 청동 인간 탈로스

청동종족 다음으로는 현재의 인간, 즉 철 종족이 이어지는데, 바로 철 종족 직전에 영웅의 종족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상세하게 살펴볼 아르고(Argo)호의 영웅들은 바로 이 영웅 종족에 속했다. 탈로스(Talos)라는 청동 종족이 있었다. 그는 영웅시대에 까지 살았는데, 크레테 섬을 지키는 청동 종족의 생존자인 것이다. 이 탈로스는 그리스 영웅들이 탄 아르고호가 크레테 섬에 정박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때 메데이아(Medeia)가 마법으로 그 탈로스를 죽인다. 메데이아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완전히 각인될 정도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배우게 될 그야말로 비극적 사랑의 운명의 여인이다.

탈로스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죽는가, 이 장면은 아폴로니오스가 그의 『아르고 나우티카』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탈로스의 몸 전체와 사지는 청동으로 되어 있어서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발목 힘줄 밑에 피로 가득 찬 정맥이 하나 있었고, 그걸 얇은 피부가 감싸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바로 이 피부에 달려 있었다. 영웅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공포에 질려 열심히 노를 저어 배를 재빨리 해안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다. (...) 메데이아는 주문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여신들을 달래고 찬양했다. 하데스 신의 충실한 종인 그들은 공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바로 그 여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세 번 주문을 외우고 세 번 기도를 하며 간청했다. 그런 다음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청동인간 탈로스에게 적개심어린 시선을 던져 그의 시력을 잃게 만들었다. (...) 탈로스는 영웅들이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뽀족한 돌부리에 자신의 발목의 약한 피부를 긁히고 말았다. 거기서 이코르가 녹은 납처럼 흘러나왔다. 돌출한 바위에 올라섰던 탈로스는 더 이상 서 있질 못했다. (...) 탈로스는 지칠 줄 모르던 발을 이쪽저쪽 흔들더니 엄청난 굉음을 내며 땅바닥에 힘없이 쓰러졌다”

영웅들의 마지막 적수인 청동인간 탈로스를 죽임으로써, 진정한 영웅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영웅시대

로마 시대 작가인 오비디우스의 시대구분에는 이 영웅시대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 작가 헤시오도스는 청동 종족 다음으로 영웅종족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헤라클레스, 펠레우스, 이아손 등 아르고호 원정대 55인의 영웅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 이후의 많은 영웅들은 테바이 전쟁과 트로이아 전쟁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영웅들이 죽은 후 그리스 신화도 끝난다. 헤시오도스의 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합시다.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신 제우스께서 많은 것을 부양하는 땅 위에
또 다시 네 번째 종족을 만드시니, 이들은 더 의롭고 더 선량했소.
반신이라고 불리는 영웅들의 이 신 같은 종족이
끝없는 대지에서 우리들의 바로 앞 세대지요.
그리고 그들은 사악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전투가 멸했소.”

오비디우스는 시대로 구분했지만, 헤시오도스는 종족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멸된 그리스 영웅들에 관하여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는 하나의 시대로 나눌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학습 정리]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하여 올림포스의 새 주인이 되었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티탄신족에서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로 바뀐 것이다. 제우스는 형제들인 포세이돈과 하데스의 도움으로 티탄신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인족들인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바야흐로 인류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렇지만 세상은 4계절로 나뉘었고, 황금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사악한 인류들도 등장하여 그야말로 제우스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황금시대, 은의 시대를 거쳐 청동시대 및 철의 시대로 세상은 바뀐 것이다. 이제 제우스가 인류를 심판하는 대홍수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학습 평가]

- ▶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압하고 올림포스의 으뜸 신으로 등극하는 신은 누구인가요? 답) 제우스
 - ▶ 제우스의 형제로 바다를 통치하게 될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포세이돈
- [그림 2-8을 또 사용하세요]
- ▶ 청동 인간으로서 영웅시대에 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자는 누구인가요? 답) 탈로스

[3주차]

3.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와 이오를 사랑한 제우스

[학습 개요]

- ▶ 제우스의 대홍수와 새 인류의 조상 데우칼리온(Deukalion)
- ▶ 아폴론(Apollon)의 신탁
- ▶ 제우스와 이오(Io)의 사랑
- ▶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Herakles)

이번 주에 우리는 인류의 타락상을 목격한 제우스가 대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과정, 이 엄청난 홍수에서 살아남은 데우칼리온으로 부터 새로운 인류가 생겨나는 모습 등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 대홍수로 인한 멸망의 세계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존재는 바로 왕뱀 뱀톤(Python)인데, 파르나소스(Parnasos)산을 지키고 있는 이 왕뱀을 죽이고 아폴론 신이 파르나소스 산기슭 델포이(Delphoi)의 새 주인이 되어 신탁을 내리게 됩니다. 아폴론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이 신탁의 의미가 신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이오의 사랑이 무엇이고, 이 사랑으로 부터 그리스의 주요 영웅들과 주요 왕국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과 이 후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에 관하여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학습 내용]

3.1 제우스가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다

가) 제우스의 분노

● 인육을 먹는 아르카디아의 폭군 뢰카온

성서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대홍수가 그리스 신화에서도 나옵니다. 사악한 인류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갈수록 타락하고 사악해지는 인간들을 대홍수로 멸종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오비디우스는 『변신이야기』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인간들의 죄악을 내려다보던 제우스는 인육을 먹는 잔치를 열었던 아르카디아의 왕 뢰카온이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

고는 인간들을 벌주고 멸망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신들의 회의를 열고,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 겪고 본 뤼카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사학함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복수의 불길을 일으켜 그 집을 온통 다 태워버렸소. 이 자는 도망가다가 입은 옷은 털로 바뀌고 팔은 그만 짐승의 앞다리가 되었으니, 뤼카온이라는 이 자, 이리로 변신한 것이오. 이리의 눈빛이 사납고 잔혹한 성질을 갖고 있소? 그건 바로 이 자의 화신이기 때문이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소. 그래 내 인간들을 쳐서 절멸시키려 하는 것이오. 새로운 종족, 즉 이전의 종족과는 전혀 다른 새 인류에게 땅을 맡길 것이오.”

●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한 제우스

이렇게 말하면서 제우스가 벼락방망이를 들고 벌떡 몸을 일으키자,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신들이 모두 몸을 움찔하며 두려움 속에서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제우스가 그 커다란 벼락방망이를 휘둘러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벼락을 던지려고 방망이를 쳐들던 제우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면 수많은 불기둥들이 올라와 자칫 천궁에 까지 불이 붙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고, 천궁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예언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세상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 붓고 바닷물을 끌어들이며 강줄기의 물을 범람시키어 인류를 멸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 새 인류의 조상 데우칼리온과 뤼르라(Pyrrha)

● 홍수를 일으키는 제우스의 무서운 명령

이렇게 하여, 제우스는 남풍의 신 노토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을 총동원하여 엄청난 비를 지상에 쏟아 내리게 하여,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제우스는 먼저 남풍의 신 노토스를 불렀습니다. 노토스는 제우스의 명령대로 그 큰 손으로 하늘에 걸린 구름을 건드리자, 하늘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무서운 비가 끝도 없이 퍼부었습니다. 나무와 곡식들은 바닥에 쓰러지고 산과 들, 농경지는 삼시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농사꾼들이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천상의 물을 다 쏟아 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제지간인 포세이돈과 강을 다스리는 신들의 힘을 빌려 바다와 강, 모든 물을 총동원하여 이 땅을 삼켜버리게 하였습니다. 전령을 보내어 강의 신들을 불러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다. 물줄기란 물줄기를 다 끌어 모으고 수문은 다 활짝 열어 물이 제 마음대로 흘러넘치게 하여라.”

●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삼지창

이 제우스의 명령을 어길 자는 없었습니다. 포세이돈은 퀴클로페스 3형제가 티타노마키아를 앞두고 만들어준 삼지창으로 대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대지가 요동치며 물길이라는 물길은 다 열렸습니다. 포세이돈과 강의 신들은 바다에서 해일을 일으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대지를 덮치고 강과 하천은 모두 범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9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바다와 땅이 따로 없었습니다. 도처가 바다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파멸의 풍경이었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에 모두 굶어죽었던 것입니다.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물에 빠져 죽고 굶어죽고, 새들도 날다 지쳐 떨어져 죽었습니다. 세상엔 남은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노아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 두 명의 생존자, 데우칼리온과 뿔르라

보이오티아 평원과 오이타 평원 사이에는 포키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으나, 이 엄청난 대홍수로 다 잠기고 바다가 되었는데, 여기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파르나소스 산만 그 꼭대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데우칼리온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뿔르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가장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이 둘은 살아 남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실은 이들의 아버지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뜻을 미리 알고서 데우칼리온에게 큰 나무배를 만들어 대비하라고 가르쳐주었고, 데우칼리온은 아내 뿔르라와 함께 아버지의 명을 따랐던 것입니다.

3.2 새로운 인류와 왕벼 뿔톤이 지상에 생겨나다

가) 인간들로 변신하는 돌

● 테미스 여신의 충고

[3-1]

대홍수에 살아남은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뿔르라는 둘 만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다시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테미스 여신의 신전을 찾아가 여신의 뜻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테미스 여신은 이치의 여신으로서 늘 올바른 충고를 잘 해주는 여신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테미스 여신의 신전에 가서 기도하자, 여신은 이들을 가엾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크신 어머니의 뼈를 어깨 너머로 던지거라.”

신의 소리는 늘 상징적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데우칼리온과 뿔르라는 한 참동안 이 뜻을 몰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여신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데우칼리온이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난 대지이고 그 어머니 뼈는 바로 대지 속의 돌일 것이다”라고 테미스 여신의 말을 해석했습니다.

[3-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우칼리온과 뿔르라는 테미스 여신이 시키는 대로 어깨 너머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구르던 돌들은 말랑 말랑해지면서 점차 사람의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돌의 녹녹한 부분은 살이 되고, 딱딱한 부분은 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는 이렇게 돌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신화의 설명입니다.

[3-3]

보틸라(Wojtyla)의 이 그림에서 돌을 던지는 모습이 매우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들은 남자가 되고, 뿔르라가 던진 돌들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고, 뿔르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의 딸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아버지는 서로 친형제이므로 이들은 결국 사촌지간입니다. 현 인류의 아버지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제우스의 불방망이에서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갖다 준 신이 바로 프로메테우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뿔르라가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즉 판도라는 남편 에피메테우스가 집안에 갖고 있었던 상자를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음에도 호기심 때문에 그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불행, 질병, 전쟁 등이 다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류에게 그런 나쁜 것들을 갖다 주었던 여자입니다.

다. 향후 그리스를 건설하게 될 새 인류는 결국 프로메테우스의 자손들이고, 또 판도라의 자손들인 셈입니다.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에 대해서는 다음 주 부터 두 주에 걸쳐서 상세하게 언급할 것입니다.

나) 왕뱀 뤼톤과 아폴론의 신탁

● 왕뱀 뤼톤의 탄생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이 대홍수 뒤에 땅에 남아 있던 습기가 햇볕에 뜨거워질 즈음에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대지의 여신이, 살아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왕뱀 뤼톤을 지어낸 것도 이 즈음이었습니다. 이 왕뱀은 누우면 산자락 하나를 덮을 만큼 컸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폴론의 신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향후 신화를 읽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영웅들 앞에 나타난 아폴론

아폴로니오스의 작품 『아르고나우티카』를 보면, 그리스 영웅 55인이 아르고 호를 타고 황금양피, 즉 황금으로 된 양의 모피를 찾으러 흑해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나라 콜키스로 항해할 때, 그들이 흑해 입구의 티니아스 섬에 도달하자, 아폴론 신이 나타납니다.

“영롱한 빛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벽이라고 부르는 어슴푸레한 빛이 밤을 뚫고 미끄러지듯 들어올 때 쯤, 아르고호의 영웅들은 황량한 티니아스 섬의 항구에 도착하여 기진맥진한 채로 상륙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그들 앞에 레토 여신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를 보자 영웅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도 감히 그 신의 아름다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시선을 아래 땅으로 향한 채 그렇게 그냥 서 있었다. 아폴론 신은 이미 공중에서 저 멀리 바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폴론이 아르고 호의 영웅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신이 영웅들을 돕고 있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아르고 호의 영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 왕뱀을 죽이는 아폴론

이렇게 아폴론이 영웅들 앞에 불현듯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에 이어 왕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페우스는 언젠가 암반 투성이의 파르나소스 산등성이에서 활로 끄찍한 괴물 뱀 델피네스를 어떻게 죽였는지 노래했다. 아폴론이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소년이고 자신의 곰슬머리를 뽐내던 시절이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폴론은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있는 델포이에 자신의 신전을 꾸미기 전, 소년 시절에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왕뱀을 죽인 것입니다. 괴물 뱀 델피네스는 왕뱀 뿔톤을 가리킵니다. 왕뱀이 죽자, 제우스의 뜻에 따라 사람으로 변신한 왕뱀의 부인 뿔티아를 여사제로 두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통해 그의 예언을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삼각대 모양의 의자에 앉아 밑에 갈라진 땅 틈 사이로 나오는 지하의 증기에 도취된 채 잘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언어로 신탁을 내립니다.

● 아폴론 찬가

어쨌든 델포이를 접수하기 위하여 뿔톤을 죽일 때 아폴론은 왕뱀의 독이 다 빠지고 쓰러질 때까지 화살 통 하나 다 비워야 했는데, 그 때 파르나소스 산 코리키온 동굴의 요정들은 뱀과 싸우는 아폴론을 향해 ‘이에 이에’라고 소리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ie'는 ‘쏘다’의 명령형으로 결국 ‘싸요, 싸’라는 의미인데, 그 이후 ‘이에 이에’는 아폴론 찬가의 후렴구가 되었습니다.

[3-4]

이것은 들라크루아의 작품으로 아폴론이 뿔톤을 죽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 델로스 섬에서 태어난 아폴론

그렇다면 아폴론은 왜 왕뱀 뿔톤을 죽였을까요? 아폴론과 그의 쌍둥이 여동생 아르테미스는 이미 언급했듯이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제우스의 원래 부인은 헤라인데, 헤라는 제우스의 자식을 임신한 레토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대지의 여신에게 부탁하여 괴물 왕뱀 뿔톤을 만들게 하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지 못하도록 왕뱀 뿔톤을 통해 레토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다.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몸을 숨기고 방황하던 레토는 델로스(Delos) 섬에 가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레토에게 땅을 제공하여 아기를 낳게 하면 그 땅을 저주하겠다고 헤라는 맹세했는데, 델로스 섬은 뿌리가 없음으로 헤라의 이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은혜를 고맙게 여겨 델로스 섬이 바다 밑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3-5]

이것은 바티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폴론의 동상입니다. 아폴론은 왕벼의 정복자이자 태양의 신입니다. 또한 여동생 아르테미스와 함께 사냥에도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늘 화살 통을 곁에 달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남성 신들 중에서 몸매가 가장 균형 잡혀 있으며 면모가 수려한 아폴론은 고대 그리스의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6]

아폴론은 아버지 제우스를 닮아 바람기가 많았습니다. 푸생의 이 그림은 어느 날 요정 다프네를 보고 사랑하려고 아폴론이 쫓아갑니다만, 다프네를 품에 안으려는 순간 그녀가 월계수 나무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로 변한 다프네에 입 맞추며 아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앞으로 만들어 승리자들의 머리에 씌워 줄 월계관 또한 시들지 않으리라”. 그 후 올림픽 마라톤의 승자 머리에 월계관이 씌워지게 된 것도 이런 신화로부터 온 것입니다.

[3-7]

화살통을 어깨에 지고, 짐승을 한 마리 잡아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폴론이 태양의 신을 맡을 때,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라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주로 사냥의 여신으로서, 숲 속에서 처녀 여신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순결을 중시하는 아르테미스는 처녀성을 잃은 여성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기도 합니다.

[3-8]

<사냥에서 돌아오는 아르테미스>라는 제목의 루벤스 그림입니다. 인물들의 얼굴 표정이나 몸매, 그림의 구도 및 색채에서 역동성과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신화 자체에 충실하기 보다는 루벤스 자신의 특징을 잘 드러낸 그림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3.3 영웅들의 탄생은 이오와 제우스의 사랑으로 시작된다.

가) 이오를 사랑하는 제우스

●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

아르고스의 이나코스 강은 다른 강과는 달리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동굴 깊숙이 들어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제 강물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딸 이오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소문 해봐도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그것은 제우스가 그녀를 암소로 변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우스는 그녀를 암소로 만들어놨을까요?

● 제우스와 이오의 사랑

천상에서 땅을 내려 보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사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바람둥이 제우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을 보고 역시 지상으로 내려가 동침합니다. 처음에 제우스는 이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녀여, 제우스에게나 어울릴 아름다운 처녀여, 그대가 잠자리를 함께 하면 제우스가 얼마나 기뻐할까? 해가 황도를 지나는데, 그러니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저 따가운 별을 피하기로 하자”

그렇지만 아름답고 순결한 이오는 제우스를 피해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넓은 숲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조정하는 천궁의 대신입니다. 그는 이오가 달아나는 대지 위에 구름을 드리워 어둠을 깔아서 이오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 암소로 변한 이오

대낮에 갑자기 짙은 구름이 드리우고 어둠이 내리자, 이상하게 생각한 제우스의 정실 부인 헤라가 구름을 제치고 대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나코스강가에 남편 제우스와 어느 멋진 암소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헤라가 지상을 관찰하려는 순간, 이를 알아챈 제우스가 동침한 이오를 얼른 암소로 변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우스가 암소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오의 아버지 이나코스가 아무리 찾아도 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3-9]

코레지오의 이 작품은 제우스의 연인 이오를 그린 그림입니다. 제우스가 아름다운 처녀 이오와 동침한 후, 정실부인 헤라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구름자락으로 이오를 가리고 있습니다.

● 이오를 감시하는 아르고스

그렇지만 헤라도 이 멋진 암소가 제우스의 연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3-10]

피터 라스트만의 이 그림에서 헤라가 하늘에서 내려와 제우스와 암소로 몸이 바뀐 이오를 발견하고는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암소 곁에 그려진 사랑의 신 에로스는 제우스와 이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을 암시 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헤라는 이오가 다시 사람으로 바뀌어 제우스와 사랑하지 못하도록 눈이 백 개나 달린 아르고스로 하여금 암소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헤라의 손으로 넘어간 암소는 아버지를 보고도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아버지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 헤르메스와 아르고스

이오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를 불러서 이오를 구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제우스의 충실한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아르고스가 지키고 있는 이오에게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눈이 백 개나 되는 아르고스의 시선을 피하여 이오를 데리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목신 판이 만들었다는 갈대 피리 쉬링크스를 불며 이 갈대 피리가 만들어진 사연을 이야기 해 줍니다. 헤르메스의 이야기와 그가 부는 피리소리에 결국 백 개나 되는 눈을 모두 감고 아르고스가 졸기 시작하자, 헤르메스는 단숨에 그의 목을 자르고는 바위산에서 아래로 차 버렸습니다. 제우스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라도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됩니다.

[3-11]

루벤스가 그린 <헤르메스와 아르고스>라는 제목 작품입니다. 암소로 몸을 바꾼 이오를 감시하다가 헤르메스의 피리 소리에 잠이 든 아르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머리에 쓴 것은 제우스의 심부름을 할 때 쓰고 다니는 날개 달린 모자입니다. 지금 제우스의 전령으로서 충실히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12]

안드레아 로카텔리(Locatelli)의 이 그림은 상당히 목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긴 장감이 풀려 있으며, 암소로 변해 있는 이오도 관심 없는 듯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죠.

[3-13]

헤르메스가 피리를 불어 아르고스를 잠재우는 장면을 그린 또 다른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야콥 반 캄펜(Jacob van Campen)의 작품인데, 방금 본 로카텔리의 그림과는 반대로 주변의 풍경 혹은 배경이 생략된 채 인물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암소로 변신한 이오가 날카롭고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나) 제우스와 이오 후손들

● 아이큐토스의 이오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오는 암소로 떠돌아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가 헤라에게 간청하여 헤라의 분노와 질투를 가라앉히고 이오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이제 이오는 어엿한 여신이 되어 흰 옷을 입은 신관을 거느립니다. 이오는 에파포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는 제우스의 씨를 받아 이오가 지어낸 아들인 것입니다. 아이큐토스, 즉 지금의 이집트 신화에 풍요의 여신 이시스가 있는데, 이시스는 이오와 동일한 여신으로 믿어집니다. 이 아이큐토스 땅의 신전에는 이오 신전과 그녀의 아들 에파포스 신전이 나란히 있습니다.

● 아이큐토스와 테바이

제우스와 이오의 아들 에파포스는 리비아라는 딸을 두게 되는데, 리비아는 포세이돈과의 사이에 두 아들, 벨로스와 아게노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게 되겠지만, 벨로스로 부터는 아이큐토스와 다나오스 쌍둥이 형제가 생겨서 각각 아이큐토스와 아르고스의 왕이 되어 자손을 잇게 되고, 아게노르로 부터 낳은 아들 카드모스는 저 유명한 테바이의 건설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오의 후손들은 그리스 신화의 주요 가문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형성하는데, 앞으로 배울 그리스 영웅 페르세우스도 다나오스의 후손이며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로 대표되는 테바이의 가문의 비극도 모두 여기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오의 13대 자손인 헤라클레스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3.4 이오와 제우스의 후손으로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다

가)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의 탄생과 성장

● 헤라클레스의 탄생

[3-14]

이 사진은 헤라클레스 동상이 있는 도심의 분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은 헤라클레스입니다. 이렇게 동상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헤라클레스 관련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탄생 역시 제우스의 바람기 또는 여인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Alcmene)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알크메네는 암피트뤼온(Amphitryon)의 아내였습니다. 암피트뤼온은 알카이오스의 아들이며,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메두사의 목을 치고 안드로메다를 구출한 영웅 페르세우스의 손자입니다. 제우스가 알크메네에게 접근 할 때, 그녀의 남편 암피트뤼온이 원정 나가고 없는 사이 남편 암피트뤼온의 모습으로 변신해서야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충실한 매우 정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잉태된 생명이 헤라클레스입니다.

● 요람에서 뱀을 목 졸라 죽이는 헤라클레스

그렇지만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질투심 강한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를 죽일 목적으로 생후 8개월 된 헤라클레스의 요람에 두 마리의 독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8개월의 헤라클레스는 두 손으로 그 독사를 목 졸라 죽여 버렸습니다.

[3-15]

훗날 장차 아내가 될 데이아네이라라는 여자를 두고, 헤라클레스가 아켈로우스라는 자와 결투할 때, 아켈로우스가 뱀으로 변신하여 꼬리를 틀고 갈라진 혀로 쑹쑹 소리 내고 있는 것을 보자, “강보에 싸여 있을 때도 뱀을 잡은 나다”라고 비웃으며 소리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에 연유합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뱀을 목 졸라 죽인 것은 헤라클레스의 용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앞으로 헤라클레스의 영웅적 행적을 암시하는 일화인 것입니다.

● 헤라클레스의 성장 과정

헤라클레스가 자란 곳은 테바이 궁전입니다. 명목상 아버지 암피트뤼온은 장인의 후계자로 티웬스(Tiryns)를 통치할 인물이었으나 실수로 장인을 죽인 후, 티웬스에서 추방당하고 아내 알크메네와 함께 테바이로 망명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바이의 왕 크레온(Kreon)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테바이에서 성장한 헤라클레스는 암피트뤼온을 도와 테바이와 숙적이던 오르코메노스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테바이의 왕 크레온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헤라클레스에게 자신의 딸 메가라(Megara)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그렇지만 헤라의 끈질긴 질투는 헤라클레스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으며 행복하게 살던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성하여 아내가 암사자로 보이고, 아들들이 하이에나로 보여서 그들 모두를 목 졸라 죽여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라가 그를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미 때는 늦었고 죽은 가족들을 되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끔찍한 죄를 씻을 방도를 찾기 위하여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여사제 뢰티아로부터 신탁을 받는데, 그것은 암피트뤼온의 사촌인 티웬스의 왕 에우뤼스테우스를 찾아가 그에게 봉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우뤼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인간 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12 가지의 과업을 주며 이것을 다 완수하면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이것은 헤라가 에우뤼스테우스를 통하여 헤라클레스에게 시키는 일인데, 헤라클레스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이 12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 헤라클레스와 옴팔레

헤라의 저주로 인하여 헤라클레스는 종종 광기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죽인 광기 외에도 그는 언젠가 술잔치에서 이피토스라는 청년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 죄를 씻을 방도를 찾기 위하여,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를 찾아갔는데, 희한한 신탁이 나왔습니다. 즉, 뢰디아 땅 옴팔로스 왕국의 여왕 옴팔레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옴팔레 여왕이 과부이며 매우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라는 것은 여왕과 성생활을 하라는 말과 다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옴팔레>는 <배꼽>이라는 뜻이며,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왕이 세계 중심이라는 것인데, 아직 모계 중심의 전통이 남아있던 사회의 신화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배꼽은 성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부나 처녀들이 매춘부로 즐기다가 사내를 맞아들이는 문란한

성 풍습이 있었습니다.

[3-16]

프랑수아 르무안(Francois Lemoyne)의 이 그림을 봅시다. 헤라클레스는 옴팔레의 비단옷을 입고 있으며, 옴팔레는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을 걸치고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한 후, 서로 옷을 바꿔 입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은 무엇입니까? 헤라클레스가 성취해야 할 12가지 과업 중의 하나로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누구도 죽이지 못했던 이 사자를 때려잡고는 그 가죽을 평생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영웅으로서 아주 상징적인 옷이었는데, 이것을 문란한 성생활에서 여인에게 벗어주었던 것입니다. 용맹한 영웅이지만, 여인과의 사랑에서는 아버지 제우스와 같은 본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 신화의 특색은 신이나 영웅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때는 평범한 인간보다 더 퇴락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들이 그들의 영웅적 행위로 인하여 극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17]

로마넬리(Romanelli)의 그림은 헤라클레스가 사랑의 신 에로스의 화살을 맞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에로스가 개입되면 누구라도 사랑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데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의 사랑도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3-18]

프랑수아 부셰(Francois Boucher)는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와의 사랑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애당초 옴팔레의 종살이를 해야 한다는 신탁을 받은 것인데, 헤라클레스에 관한 신화를 읽은 후대 예술가들이 헤라클레스와 옴팔레의 관계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헤라클레스의 최후와 신으로의 재탄생

● 헤라클레스 부인의 질투

오이칼리아의 에우뤼토스는 활숨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온 나라에 활 시합을 겨뤄 자신과 아들들을 이기는 자에게 딸 이올레를 주겠다는 방을 붙이고 활숨씨를 겨루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많은 도전자들이 나섰지만 아무도 그들을 당해 낼 수 없

었습니다. 때마침 오이칼리아에 들른 헤라클레스가 시험에 나서 이겨, 이올레를 갖게 됩니다. 헤라클레스 곁에 있는 이올레에 질투를 느낀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의 사랑을 되돌릴 방도를 강구하다가 문득 켄다우로스, 즉 허리 위로는 사람이고 허리 아래로는 말인 반인반마 네소스로 부터 받았던 피에 젖은 천 조각을 생각해 냅니다.

● 독이 묻은 네소스의 천 조각

네소스는 헤라클레스를 속이고 그의 아내 데이아네이라를 납치해 가려다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3-19]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폴라이우오로(Pollaiuolo)의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가지 과업 중 하나로 물뱀 휘드라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그는 휘드라의 독을 화살에 묻혀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소스가 맞은 화살에도 휘드라의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소스는 죽으면서, 천 조각을 자신의 흐르는 피로 적서 장차 꼭 필요한 사랑의 묘약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를 헤라클레스의 아내 데이아네이라에게 주었습니다. 휘드라의 독이 묻은 천 조각이 네소스의 말대로 사랑의 묘약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데이아네이라는 이 천 조각을 통하여 이올레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남편의 마음을 자신에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 독 묻은 옷을 입고 죽어가는 헤라클레스

마침 그 때 집을 떠난 헤라클레스가 전령 리카스를 보내 신들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복이 필요하니 한 벌 만들어 보내라고 기별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그녀는 네소스의 거짓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천 조각을 기워 넣은 예복을 만들어 리카스에게 주어 남편에게 전달하라고 일렀습니다. 물론 남편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옷에 묻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카스로 부터 휘드라의 독이 묻은 예복을 받은 헤라클레스는 아무 의심도 없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자, 이미 불이 지핀 제단의 열기 속에서 독이 녹으며 헤라클레스의 온 몸 구석구석으로 들어와 퍼져 나갔습니다.

● 화장 단 위에서 스스로 불타 죽는 헤라클레스

처음에 헤라클레스는 놀라운 용기로 고통을 참아냈지만, 한계에 다다르자, 오이타산이 떠나가도록 고통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끝까지 고통을 주는 헤

라 여신에 대한 원망과 한탄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신음을 하며 예복을 뜯어내려 했으나 몸에 달라붙은 옷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전해준 리카스를 오이타 산 너머 멀리 바닷가로 집어던진 헤라클레스는 오이타 산 나무를 잘라 스스로 화장 단을 쌓고는 필록테데스로 하여금 불을 붙이라고 부탁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스스로 나무를 잘라 쌓아놓고 그 위에 누워 불타 죽었습니다. 죽는 방식을 자신이 선택한 용맹한 영웅인 것입니다.

[심화 학습]

■ 천궁에 올라간 헤라클레스 ■

● 신이 된 헤라클레스

천궁의 신들은 지상의 왕자였던 이 영웅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저 아이가 이룬 위대한 업적으로 저 아이를 대견하게 여기는 모양이오만, 그 영광은 나로 인한 영광에 다름 아니오. 저 오이타 산에 타오르는 불길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모든 것을 정복한 헤라클레스는 그대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불길까지 정복할 것이오. 헤파이스토스의 권능이 태울 수 있는 것은 저 아이가 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뿐이오. 저 아이가 내게서 받은 것은 영생불사 하는 것이니 저런 불길에 탈 리가 없소. 나는 이제 지상에서 한살이를 마친 저 아이를 이 천상으로 불러올리려 하오. 나는 그대들 신들이 모두 기뻐하리라고 믿소.”

이런 제우스의 뜻에 따라, 헤라클레스의 육신이 불타는 동안, 영혼은 아테네 여신과 함께 이룬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필멸의 육체를 벗고 불사의 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헤라는 그때서야 비로소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와 화해한 후, 자신의 딸인 헤베(Hebe)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헤라가 부과한 열두 가지 과업을 무사히 치러냄으로써 헤라를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라를 영광되게 한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은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제우스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아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사후에 신이 되어 헤베와 결혼하는 것은 그가 신들만의 특권인 영원한 청춘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헤베는 제우스와 헤라의 딸로서, 신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으나, 이 일은 나중에 제우스가 암말을 주고 그 대가로 데리고 온 트로이아의 왕 라오메돈의 아들인 미소년 가뉘메데스(Ganymedes)가 맡게 됩니다. 루벤스의 작품인 이 그림에서는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신하여 가뉘메데스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 헤라클레스의 신격화에 대한 견해

그런데, 헤라클레스의 이런 신격화에 대하여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것이 흥미롭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신통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헤라클레스는 한숨을 자아내는 시련들을 마치고 나서
위대한 제우스와 황금 샌들의 헤라의 딸인 헤베를
눈 덮인 올림포스에서 정숙한 아내로 삼았다.
불사신 사이에서 큰일을 해내고 나서 지금은
언제까지나 고통도 나이도 모른 채 살고 있으니
헤라클레스야말로 행운아로다!”

헤라클레스가 영생하는 신의 반열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후기 신화 작가들의 작품에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전쟁터에서 맞이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서 어머니 테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죽음의 운명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어요.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 왕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강력한 헤라클레스도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운명의 여신과 헤라의 무서운 노여움에 제압되고 말았어요.”

호메로스는 헤라클레스의 신격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그가 헤라의 노여움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정리]

제우스는 대홍수를 일으켜서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키고, 데우칼리온으로 부터 시작되는 새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파르나소스 산기슭 델포이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아폴론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즉 영웅들이나 인간들에게 신탁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탁은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사는 뢰티아

라는 무녀가 전하는 매우 상징적인 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폴론이 예언의 신이 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 혹은 영웅들의 비극은 이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항하는 자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운명에 대한 저항을 통하여 진정한 인간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신화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제우스의 바람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19세기 신화학자 벌핀치의 지적대로, 제우스와 이오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 주요 가문이 형성되고 주요 인물들이 태어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의 파란만장한 삶과 사랑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의 죽음이야말로 신화의 역동적 담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습 평가]

- ▶ 대홍수에도 살아남아 새 인류의 아버지가 된 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데우칼리온
- ▶ 제우스와 동침한 이후, 암소로 변한 여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이오
- ▶ 제우스의 아들이자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며 사후에 신의 반열에 오른 자는 누구인가요? 답) 헤라클레스
- ▶ 헤라클레스가 종살이를 했던 옴팔로스의 여왕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옴팔레

[4주차]

4.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학습 개요]

- ▶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신인가
- ▶ 제우스에 저항하는 프로메테우스
- ▶ 제우스의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
- ▶ 쇠사슬로 묶인 프로메테우스
- ▶ 프로메테우스의 저항 정신

우리는 지난주에 인류를 멸망시킨 대홍수와 대홍수 이후 나타난 왕벼 퓌톤 그리고 아폴론 신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데우칼리온 시대로 돌아가, 새 인류의 시조인 데우칼리온의 아버지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신인지 알아볼 것이고, 왜 그는 천상의 신 제우스에 저항했고, 왜 그리고 어떻게 제우스의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갖다 주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징벌로 쇠사슬에 묶여 벌을 받으면서도 제우스에 굴복하지 않는 프로메테우스의 저항 정신에서 인간의 운명과 닮아있는 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

4.1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신인가

가) 티탄 신족 프로메테우스의 한탄

아이스퀼로스의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쇠사슬로 바위에 묶여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보시구려, 사슬에 묶인 이 불행한 신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제우스의 적이 되고,
제우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신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

[그림 4-1]

그림을 보면, 카우카소스(Kaukasos) 산 바위에 묶여 독수리에 간을 파 먹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의 눈빛이 아주 강력하고 저항적입니다.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제우스로부터 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신인가요? 프로메테우스는 우라노스의 5번째 아들인 이아페토스의 아들이므로 티탄 족에 속하는 신입니다. 또한 대홍수 이후 나타난 새 인류의 시조 데우칼리온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티탄(거신 족)이면서 인간과 관계되는 특이한 신이 된 셈입니다. 그가 고통 받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 속에서 제우스에게서 불을 훔쳐 인간에 갖다 줌으로써 인간들의 새로운 삶의 양태를 열어준 것도 이런 관계 속에서 생겨난 인간 사랑일 것입니다.

4.2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 저항하다

가) 제우스를 도운 프로메테우스

● 티타노마키아와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권력을 쥔 제우스는 우라노스에 이어 티탄 신족을 다스리고 있었던 크로노스의 아들이므로, 티탄 신족은 올림포스 신족보다 가족적으로 따지면 향열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족 사이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티탄 신족과의 전쟁)라고 하죠.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하여 이미 공부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이 제우스를 상대로 난을 일으키리라는 것도 알았고, 티탄 신족이 패배할 것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이 전쟁에서는 제우스를 도왔던 것이죠. 앞날의 권력이동을 미리 간파한 영리한 프로메테우스의 선택인 것입니다.

● 하늘을 떠받치는 아틀라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제우스를 도운 건 아니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통치할 수 있도록 크로노스를 권좌에서 축출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신들의 세력과, 제우스는 절대로 신들을 통치해서는 안된다는 티탄족 세력사이에서 상당히 조

언도 하고, 의견을 조정해 보려고 했으나, 티탄신족들이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자, 결국 제우스 편들었던 것입니다. 우직하게 티탄 편에서 싸웠던 이아페토스의 또 다른 아들 아틀라스는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벌을 받았지만, 아틀라스와 같은 형제들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공을 인정받아 제우스로부터 주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나) 제우스의 강권 통치

● 크라토스(힘의 신)와 비아(폭력의 신)의 등장

그렇지만, 티탄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제우스의 독재와 강권통치가 계속되자, 제우스를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을 궁리합니다. 제우스가 초기에 상당한 강권 통치를 한 것은 아이스퀼로스의 작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를 강제로 쇠사슬에 묶는 신들의 이름이 힘이라는 의미의 크라토스(Kratos)와 폭력이라는 뜻의 비아(Bia)인 것을 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 신들은 매우 가혹하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몸을 단지 사슬로 묶었을 뿐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에 강철 뼈기를 박기도 합니다. 장차 예수가 손바닥에 쇠못이 박히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 제우스의 폭정을 규탄하는 프로메테우스

이런 점에서 후기의 신화학자들,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예술가들 그리고 시인들은 인간을 불로써 구원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작품에 이런 모습을 투영시킵니다. 사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는 프로메테우스가 아주 꽤 많고 교활한 신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아이스퀼로스 시대에 오면 벌써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퀼로스는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요소인 합창대 코로스를 등장시켜,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을 슬퍼하고 제우스의 폭정을 이렇게 규탄합니다.

“프로메테우스여!

놀란 나머지 솟아오르는 눈물에

눈앞이 흐려져요.

그대가 강철에 묶여 이런 수모를 당하며

암벽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까 말예요.

새로운 키잡이들이 올림포스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새로 만든 법에 따라 제우스는 아무 법규도 없이 통치하고

있으며 전에 강력하던 것들을 그는 지금 말살하고 있어요.”

다)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

● 인간 창조는 저항의 상징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에 관하여 알아보시다. 인간 시대에 관해서는 헤시오도스의 『노동과 나날』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인간들의 시대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인간 종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즉, 황금시대, 은의 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가 그것인데, 사실 헤시오도스는 시대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에 따르면 황금 종족과 은의 종족은 올림포스 신들이 창조했고, 청동 종족은 제우스가 물푸레나무에서 만들었으며,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영웅들은 제우스와 이오의 사랑으로 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은 철의 종족에 속한다고 생각 합니다. 헤시오도스는 이 종족을 바로 “우리들의 세대”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 인류를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헤시오도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의 신화 원전 작가들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아폴로도로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물과 흙으로 인간들을 빚은 다음 제우스 몰래 회향불의 줄기에 감춰두었던 불을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 프쉬케(영혼)을 넣어준 아테네 여신

장차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줌으로써 결정적으로 제우스에 대항하게 될 프로메테우스가 이 시점에서 인간을 만들기로 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 제우스에 대한,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그러한 저항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진흙에 물을 부어 이기고 신들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을 빚어 이를 이레 동안 별에 다 말린 다음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때 지혜의 여신 아테네(지혜)가 지나가다 프쉬케(Psyche, 나비)를 한 마리 날려 보냈고, 이 프쉬케가 잘 마른 인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니, 이로써 인간에게는 ‘프쉬케’가 깃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프쉬케’는 ‘영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따라서 영혼이 깃들어 생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러나 늘 영웅의 수호여신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프로메테우스의 인간 창조라는 과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4-2]

[그림 4-3]

여기 피에르 디 코시모의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왼쪽이 프로메테우스이고, 중앙에서 있는 인간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상자로 유명한 그의 부인 판도라가 서 있습니다. 판도라에 대해서는 곧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으로 구성된 이 그림에서 에피메테우스의 머리 위에는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으며 회향풀 줄기를 들고 하늘을 날아서 불을 훔치러 가는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하늘에는 헬리오스가 끄는 태양 마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동쪽에서 서쪽 하늘로 매일 태양 마차를 몰고 달린다고 보았으며, 밤이 되면, 마차를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다시 몰고 나온다고 생각 했죠.

4.3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불을 훔치다

가) 인간에게서 불을 앗아간 제우스

● 제우스를 속이는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기 전에 인간이 사는 자연에는 불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불을 지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디만, 제우스가 그 불을 빼앗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다시 가져 올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제우스가 먼저 인간에게 불을 주지 않기로 하자, 고통 받는 인간을 측은하게 바라보던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 부터 불을 빼앗아 온 것으로 봐야 하겠죠. 그 사건의 경위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코네(Mekone)의 지역 신화에서 온 것이지만, 헤시오도스는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코네에서 신들과 인간들이 황소 한 마리를 놓고 제사문제로 서로 갈라섰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편을 들기 위하여 제우스를 속입니다. 그는 제우스 앞에 살코기와 기름진 내장을 소의 위로 덮은 다음 소가죽으로 싸서 내 놓았고, 인간들을 위해서는 뼈다귀를 쌓은 다음 그것들을 윤기 나는 기름 조각으로 교묘히 싸던 것입니다. 그 때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여,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걸출한 자여,
그대는 얼마나 불공평하게 몫을 나누었는가!”

계락을 알고 있는 제우스가 그렇게 나무라자, 음모를 꾸미는 프로메테우스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제우스여, 영생하는 신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분이여.

둘 중 어느 것이든 그대의 가슴 속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술책을 꿰뚫어보았지만 인간에게 재앙을 내릴 생각으로 일부러 뼈다귀 쪽을 택합니다. 기름 조각에 싸인 뼈다귀를 확인한 제우스는 분노하여 신을 속인 죄로 인간에게 불을 금하는 벌을 내린 것입니다.

“물푸레나무들에게 지칠 줄 모르는 불의 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헤시오도스는 쓰고 있는데 이는 곧 불을 인간으로 부터 뺏은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물푸레나무들은 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신화에서는 이 나무로 부터 종종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 제우스의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

● 인간의 고통과 프로메테우스의 결심

인간에게 이런 벌을 내린 후, 제우스가 다시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간 날 부터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을 빚고 인간에게 정을 쏟던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와의 싸움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인간에게 전처럼 살 길을 열어줄 묘책을 궁리한 결과, 제우스로 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주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제우스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불이었습니다. 외눈박이 퀴클롭스 3형제로 부터 받아 티타노마키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도구가 바로 불벼락이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벼락방망이에서 불을 훔쳐오기로 프로메테우스는 작심한 것입니다.

● 회향풀 줄기 속에 불을 담아오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테네 여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네 여신의 말에 따라 속이 빈 회향풀 줄기를 품속에 넣고는 여신의 수레를 빌려 타고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벼락에서 불씨를 훔쳐 속 빈 회향풀 줄기 안에 넣고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쉼 새 없이 흔들며 지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속이 빈 회향풀 줄기 속에다 지칠 줄 모르는 불의 멀리 보는 화광을 훔쳤다. 높은 곳에서 천둥을 치시는 제우스께서는 이에 가슴이 쓰라리셨고, 인간들 사이에서 불의 멀리 보는 화광을 보시자 마음속으로 화가 나셨다.”

키 큰 회향풀의 줄기에 들어 있는 마른 고갱이는 천천히 타기 때문에 불을 다른 곳

으로 옮기는 데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 4-4]

다) 프로메테우스와 인류 문명

● 문명의 불

프로메테우스가 훔쳐다준 불은 인간의 삶을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그 불을 이용하여 우선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었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었습니다. 땅을 뒤져 먹자면 단단한 농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불에 달구어 버리니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추우면 지금까지는 그냥 견디다가 많이 죽기도 했지만, 이제 불을 얻고 부터 인간은 보레아스의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갖다 준 불은 문명의 불인 것입니다.

● 반 자연, 반 제우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문명은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요 자연으로 부터 이탈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인간에게 문명을 갖다 주었지만 동시에 제우스가 만들어 놓은 자연에 맞추어 살라는 그 제우스의 뜻과 다르게 인간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을 소유하기 전 까지 인간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태양마차가 저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 하늘로 사라지면 삼라만상은 어둠에 잠기므로 스스로 잠을 청했고, 새벽의 신 에오스가 어둠을 휘젓고, 헬리오스의 태양마차가 하늘에 나타나면 다시 일어나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는 불은 이런 삶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먹는 것도 변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날것을 먹던 인간이 불로 익혀서 조리된 음식을 취하면서 자연의 싱싱함과 순수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 모든 기술은 프로메테우스로 부터

프로메테우스는 불만 갖다 준 신이 아닙니다. 인간에 유용한 모든 기술은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들은 지적 능력과 사고력이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일생동안 마치 꿈속의 형상들처럼 모든 것을 되는 대로 뒤섞었다고 합니다. 우글거리는 개미 떼처럼 햇빛도 안 드는 토굴 속에서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숫자를 발명해 주었고 문자의 조립도 찾아내어 주고 야수들에게 멍에를 얹어 농경을 가르쳐 준 것은 프로메테우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은 프로메테우스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고, 아테네 여신이 프쉬케를 넣어주어 영혼이 깃들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인류 문명이 프로메테우스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을 건네준 프로메테우스는 인류 문명의 신이 된 셈이며, 제우스와 완벽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4.4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로 묶이다

가) 제우스의 무서운 징벌

● 왜 프로메테우스를 벼락으로 치지 못했을까

제우스는 자신으로 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불방망이 한 번 휘둘러 단번에 죄 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우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불을 훔친 이 대죄를 두고 왜 프로메테우스를 벼락으로 내려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조금 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우선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지 보도록 합시다.

● 카우카소스 산 암벽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이것은 제우스의 벼락방망이를 맞아 신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런 형벌이었습니다. 제우스는 벼락으로 치는 대신 전령 신 헤르메스를 보내어 힘의 신 크라토스와 폭력의 신 비아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프로메테우스를 결박하여 그리스 저 동북 쪽 흑해 건너 솟아 있는 카우카소스 산 암벽에다 묶어버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 광활한 신화의 공간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활동 범위는 지금의 그리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쪽으로는 유럽 전체가 그들의 땅이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터키와 흑해 주변 지역 또 남쪽으로는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북아프리카에 걸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하여 에우로페(Europe)를 등에 태우고 유럽 전체를 휘젓고 다닌 것은 유명하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상세하게 언급될 것입니다. 또한 곧 아르고호의 영웅인 이아손(Iason)과 메데이아(Medeia)의 사랑을 관하여 살펴볼 때 공부하겠지만, 아르고호의 영웅들은 흑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북방의 나라 콜키스(Kolchis)에 가서 황금양피, 즉 황금으로 된 양털 가죽을 얻은 후, 강줄기를 따라 유럽내륙으로 들어갔다가 지중해로 내려와서, 리비아 사막에 상륙해서는 배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광활한 사막을 통과하죠. 그리고 바다로 나와 다시 배를 타고 크레테 섬을 거쳐 자신들이 떠났던 그리스 항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신화의 공간은 이렇듯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프로메테우스가 저 멀리 카우카소스 산에 묶인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우스가 죄인을 다스리는데 적합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그리스에서 볼 때 아주 먼 북방 지역의 험준한 산맥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임금에게 대든 신하를 오지의 땅으로 귀향을 보낸 셈이죠. 우리 선비들의 귀양살이는 프로메테우스처럼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프로메테우스의 신세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었기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에게 날마다 간을 쪼아 먹힙니다.

나) 사슬에 묶여 간을 쪼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

● 헤르메스의 협박과 회유

그러나 처음부터 간을 쪼아 먹히게 하는 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어 프로메테우스만 알고 있는 제우스의 앞날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이 비밀을 실토하는 것을 거부하자, 제우스는 독수리로 하여금 날마다 간을 쪼아 먹게 하는 가혹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독수리는 제우스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니 바로 제우스가 직접 고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신화 관련 그림들을 보면 늘 제우스 곁에 독수리가 보이는 것은 다 그런 이유입니다.

● 이오의 13 세대 째에 태어날 헤라클레스

이 독수리에게 하루 종일 파 먹힌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밤새 다시 돌아나 원상회복되어 다음 날 또 다시 독수리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주 오랜 세월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의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을지도 알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들과 영웅들의 세대로는 13세대 동안이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일만 년 동안 묶여 있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카우카소스 산으로 찾아온 이오(Io)에게 그녀의 13 세대 째에 나타나는 자, 그 자는 헤라클레스가 될 것입니다만, 바로 그 13 세대 째에 태어난 자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신과 영웅들의 무궁무진한 신화는 제우스와 이오와의 결합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미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오의 9세대 째에 나타나는 다나에가 제우스와 결합하여 영웅 페르세우스를 낳고 페르세우스의 손녀인 알크메네는 제우스와 하룻밤을 지내 잉태

하여 영웅 헤라클레스를 낳으니, 따져보면 이오로 부터 정확하게 13세대인 것입니다.

다) 카우카소스에 올려 퍼지는 프로메테우스의 비명

● 프로메테우스의 피와 마법의 약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이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로 부터 황금양피를 찾기 위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불을 뿜는 황소를 부려서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아이에테스의 딸 메데이아가 이아손에게 몸에 바르라고 신기한 약을 줍니다. 이 약을 바르면, 불로부터 피부가 보호되고 타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을 뿜는 황소와 겨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법의 약은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흘린 피에서 자란 약초의 뿌리에서 얻은 것입니다. 콜키스는 프로메테우스가 묶여 있는 카우카소스 산기슭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데이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 4-5]

이아손을 비롯한 55인의 그리스 영웅들이 탄 아르고 호가 카우카소스 산맥이 바라 보이는 흑해 변에 다다르자, 프로메테우스의 고통 받는 외침 소리가 들리고 머리 위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는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아폴로니오스는 『아르고호의 모험』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항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흑해의 가장 후미진 곳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뒤로 카우카소스 산맥의 가파른 정상에 솟아올랐다. 그 산은 프로메테우스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로 단단한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계속 쑥쑥 돌아나는 간을 쪼아 먹힌 곳이다. 그들은 이 독수리가 밤사이 구름을 가르며 배 위를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지나가자, 돛이 심하게 흔들렸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이 아니었다. 독수리의 빠른 날개는 마치 윤기 나는 노 같았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을 쪼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가 지르는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비명소리는, 간을 파먹던 거친 독수리가 다시 산을 출발하여 똑같은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감지될 때까지 대기에 가득 울려 퍼졌다”

4.5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가 대립하다

가) 올림포스를 앞을 중대한 비밀

● 프로메테우스를 심문하는 제우스

참으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듯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벼락으로 치지 않고 왜 이렇게 묶어놓고 고통만 주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좀 더 실감나게 접근하기 위하여 신화 작가 이윤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각색한 장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심문하는 장면부터 직접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우스 신이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신전으로 내려온 것은 밤이었다. 그는 올림포스 신들을 나란히 둘러 세운 뒤 프로메테우스를 몸소 심문했다.

‘이아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야! 정신이 바로 박힌 신들을 수시로 구역질나게 만드는 반골아, 네가 나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고는 하나 이제 나는 너에게 빛을 진 바가 없다. 네가 나에게 빛을 지고 있을 뿐이다’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자,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자비를 비는 시늉을 했다.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신이시여...’

‘그만 두어라, 족보를 따져 연줄을 대려고 하느냐? 네 죄나 네 입으로 변명해 보아라.’

‘하늘 우라노스와 대지 가이아의 직계 자손이신 제우스 신이시여.’

‘너도 하늘 땅 신들의 직손이 아니냐. 네 죄나 네 입으로 변명해 보아라.’

‘장차 이 프로메테우스가 아니고는 으뜸 신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제우스 신이시여.’

● 프로메테우스의 협박

바로 이 말, ‘장차 이 프로메테우스가 아니고는 으뜸 신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제우스 신이시여.’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프로메테우스 자신의 도움이 아니면, 제우스가 올림포스 산에 거처하며 천상의 신으로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엄청난 협박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아니면 요즘 정치 용어로 일종의 쿠데타가 벌어질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제우스로 부터 심문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반대로 협박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제우스는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를 무한 지옥에 가두고 크로노스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게 했으며, 크로노스 또한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반역했습니다. 바람둥이 제우스도 장차 어느 여신들 혹은 어느 인간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자신을 반역할지 몰라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고, 그런 아들을 태어나게 할 여신 혹은 여자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 “언젠가는 제우스도 그 아들 손에 당하리라“

“언젠가는 제우스도 그 아들 손에 당하리라“라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말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자신을 배신할 아들을 낳을 여미가 누구인지 프로메테우스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우스는 모르는 것, 그런데 “먼저 아는 자”라는 뜻의 프로메테우스만 아는 것, 그것은 향후 올림포스 산을 뒤집어엎을 중대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니, “장차 이 프로메테우스가 아니고는 으뜸 신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제우스 신이시여.”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무시무시한 협박에 제우스는 할 말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불벼락으로 쳐서 프로메테우스를 신들의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대신, 산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며 그 비밀을 실토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동안 자신을 배신할 아들을 낳을 여미가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제우스는 전령신 헤르메스를 수도 없이 카우카소스 산으로 보내 프로메테우스를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혹한 사슬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결코 올림포스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프로메테우스는 결심합니다.

“내 비록 족쇄에 꼭꼭 묶여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축복받은 신들의 우두머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그의 왕홀과 왕위를 빼앗게 될
새 음모를 내가 그에게 밝혀 주도록 말이오.
그 때는 꿀처럼 달콤한 설득의 말로도
그는 나를 호리지 못할 것이며, 나도 결코
그의 무서운 위협에 굴복하여 그것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오. 그가 가혹한 사슬에서
나를 풀어 주고 이런 모욕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려 하기 전에는.”

[그림 4-6]

그림을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계속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제우스의 전령신 헤르메스는 먼 카우카소스 산까지 날라와 묘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우스를 능가할 아들을 낳을 여미가 누구인가만 말해주면 될 텐데 프로메테우스는 끝까지 거부하며 이런 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화 학습]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신화의 상반된 해석을 보면서 신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 프로메테우스의 저항 정신 ■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강압을 버터내는 동안 인간은 황금시대를 누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사랑은 이런 고통을 딛고 성취되는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심문할 때도 그 불을 훔쳤다는 사실 보다는 훔쳐서 인간에게 갖다 주었다는 점을 프로메테우스의 더 큰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제우스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은 저항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가) 아이스퀼로스의 해석

●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대립은 그리스 비극 작가인 아이스퀼로스의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과 신, 약자와 강자, 정의와 불의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들 중 유일하게 아주 당당히 제우스를 비난하고 대항하는 모습이 여기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나) 헤시오도스의 해석

● 『신통기』

물론 『신통기』의 작가 헤시오도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오히려 사악하고 교활한 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헤시오도스는 인간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것이 오히려 제우스가 통치하는 자연에 대한 도전이고 반문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문명은 인간의 삶을 안락하고 윤택하게 만들지만, 자연의 상실에서 오는 인간성의 파괴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황금의 시대에서 철의 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심성은 악해지고 사악해졌다는 것이죠. 종국에 가서는 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프로메테우스는 역사의 퇴보를 안겨다 준 자라는 것입니다.

● 『노동과 나날』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헤시오도스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그의 가치관과 역사관이 깔

려 있습니다. 그는 평생 농부로 살았고, 땅과 친숙한 그는 천자연적이고 반문명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예찬이 담겨져 있고 헤시오도스의 경험에서 얻은 여러 가지 도덕적 실천적 교훈을 담고 있는 교훈시 『노동과 나날』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프로메테우스의 미친한 인간사랑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티탄 신이면서도 인간의 편에 서서 문명의 불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눈 덮인 카우카소스 산맥의 어느 바위 덩어리에 묶여 처참한 고통을 견뎌내고 있을 때, 인간의 문명은 매우 발전하여 황금시대를 구가했다는 점입니다. 제우스가 악이고 프로메테우스가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는 너무 단순하지만, 결코 프로메테우스가 교활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간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경지, 아니 그가 이미 신이므로 신이 할 수 있는 인간 사랑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대체하게 되는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한 예수의 모습과 미친한 인간들에 대한 예수의 무한한 은총을 연상시키는 그리스 신화의 유일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

이번 주에 우리는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 사랑으로 인하여 제우스로 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갖다 줌으로써 인간이 문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신입니다. 이는 제우스의 강압적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몰래 불을 훔친 죄로 인하여 제우스로 부터 참혹한 벌을 받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밤마다 간을 뜯겨 먹히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신만이 알고 있던 올림포스의 최대의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즉 제 아비를 능가할 자식을 낳을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여성 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여신 혹은 여성이 제 아비를 뛰어넘을 자식을 낳을 것인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의 상대에서 그러한 여신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털어놓으라는 제우스와 인간의 문명생활에 만족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대립은 헤라클레스가 나타나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줄 때 까지 지속됩니다.

[학습평가]

▶ 영원히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벌을 받은 신은 누구인가요 ? 답) 아틀라스(Atlas)

▶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 묶여 유배되어 있던 산 이름은 무엇인가요 ? 답) 카우카소스(Kaukasos) 산

▶ “언젠가는 제우스도 그 아들의 손에 당하리라” 라고 예언한 대지의 여신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가이아

[5주차]

5.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사랑 /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

[학습 개요]

- ▶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들
- ▶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한 헤라클레스
- ▶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
- ▶ 미의 여인 프쉬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인간을 사랑한 프로메테우스>를 공부할 것이며, 운명의 여인 판도라와 프쉬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첫 번째는 아비를 능가할 아들을 낳게 될 여신이 누구 인가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자신이 헤라클레스로 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테미스의 예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 의하여 풀려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우스가 왜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를 만들었는지 공부하고 유명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학습에서는 사랑의 신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 그림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

5.1 프로메테우스가 풀려나다

가) 프로메테우스의 예언들

● 비밀을 실토하는 프로메테우스

다시 산에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로 돌아가 봅시다. 제우스를 배신할 아들이 어느 어미 배에서 나올지 알려달라는 헤르메스의 수없는 간곡한 부탁과 회유와 협박에도 끄떡하지 않던 프로메테우스는 굳게 닫힌 입을 열고 그 어미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테티스(Thetis). 그 여신이 바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

[5-1]

앵그르의 이 그림은 테티스가 제우스에게 아들 아킬레우스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트로이아 전쟁>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 헤라클레스에 대한 예언

프로메테우스가 헤르메스에게 그 이름을 댄 것은 인간이 3천년 동안 황금시대를 누리는 데 크게 마음이 누그러졌기 때문이라는 자도 있고, 헤라클레스가 활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파먹는 독수리를 죽이고 그를 해방시킨 이후에 털어놓은 것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이 풀려나기 전에는 결코 이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시오도스의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방랑하다 자신을 찾아온 이오에게 자신이 헤라클레스에 의해 풀려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녀들 가운데 한 명 만이 사랑에 홀려 자신의 동침자를
죽이지 못하고, 계획이 무디어지고 말 것이오.
바로 그녀가 아르고스에 왕족을 낳아주게 될 것이오.
이 씨앗으로 부터 대담하고 활로 유명한 자가 태어나
나를 이 고난에서 풀어주게 될 것이오.
그런 신탁을 옛날에 태어나신 나의 어머니가,
티탄 신족인 테미스가 나에게 알려주셨소.”

[5-2]

랑베르 쉬스트리스(Lambert Sustris)의 작품인 이 그림은, 우리 이미 공부했듯이, 이오가 제우스와 사랑하다가 천상에 있는 헤라에게 발각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오는 헤라의 미움을 받아 끝없이 방랑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이오가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방랑 중의 일인 것입니다.

● 다나오스와 아이큐토스의 자식들

프로메테우스의 말 중에서 “처녀들 가운데 한명”이란 다나오스(Danaos)의 딸 뢰르므네스트라(Hypermnestra)를 말합니다. 다나오스의 딸들은 50명이 있었는데, 다나오스와 쌍둥이 형제인 아이큐토스(Aigyptos)도 5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왕위를 다투자 다나오스는 아이큐토스의 아들들이 두려워 아테네 여신의

조언에 따라 배를 건조한 다음 딸들을 태우고 아이큐토스를 떠나 그리스 아르고스로 도망쳤습니다.

● 남편들을 살해하는 다나오스의 딸들

아이큐토스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아이큐토스는 멜람포데스족의 나라로 정복하여 자기 이름을 따 아이큐토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다나오스는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배를 타고 도망 온 것이지요. 당시 아르고스를 다스리던 겔라노르가 다나오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는 나라를 장악한 뒤 그 주민들을 자기 이름을 따 다나오스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큐토스의 아들들은 아르고스로 가서 다나오스한테 적대감을 풀 것을 권하며 그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직도 그들을 불신하고 자기가 추방된 것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다나오스는 이들과 딸들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엄청난 거사를 꾀합니다. 즉 딸들에게 첫날밤 남편들이 깊이 잠에 빠졌을 때, 그들을 모두 칼로 찔러 살해하라고 것이었습니다.

● 아르고스 왕족의 자손들

모든 딸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숨겨둔 칼로 남편들을 죽였지만, 가장 큰 딸인 휘페르므네스트라만은 멋진 남자인 린케우스(Lynkeus)를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몸을 건들지 말고 그냥 처녀성을 유지하도록 해 달라는 조건을 달고 린케우스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정식으로 다시 결혼하여 몸을 섞는데 여기서 태어난 자식이 아르고스 왕족이 되며 이 자손으로 부터 먼 훗날 “대담하고 칼로 유명한 자” 즉 헤라클레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 다나오스 딸들의 형벌

한편 남편들을 모두 첫 날 밤에 칼로 찔러 죽인 다나오스의 딸들은 사후에 저승세계에서 밑 빠진 독에 영원히 물을 부어야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5-3]

워터하우스(Waterhouse)의 이 그림은 구멍 난 독을 채우기 위하여 영원히 물을 부어야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다나오스의 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한 헤라클레스

● 독수리를 죽이는 헤라클레스

이오의 자손은 아르고스 왕족과 테바이 왕족으로 나뉘는데, 헤라클레스는 아르고스 왕족의 후손입니다. 아폴로도로스는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를 구출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맞은 편 육지로 건너가 카우카소스 산에서 아키드나와 튀폰의 자식으로서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고 있던 독수리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올리브 나무 껍질을 택한 다음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고는 프로메테우스 대신 죽기를 자원하는 불사자로서 케이론을 제우스에게 소개했다”

아폴로도로스 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8세기 작가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복사빠가 예쁜 알크메네의 용맹스런 아들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죽여, 이아페토스의 아들을
사악한 재앙에서 구해주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올림포스의 주인이신 제우스께서 이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은 테바이 출신인 헤라클레스의 명성이
많은 것을 양육하는 대지 위에서 전보다 더욱 더 커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걸출한 아들을 존중하고 명예를
높여주셨으며, 또 비록 화가 나셨으나 프로메테우스가 막강하신 크로노스의
아드님과 지혜를 다투려 했기에 전에 그에게 품었던 노여움을 푸셨던 것이다.”

[5-4]

그리펜케를(Christian GRIEPENKERL)의 이 그림을 보면, 독수리를 죽인 헤라클레스가 한 손에는 화살과 활시위를 들고, 다른 한 손을 바위에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내밀며 구출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카우카소스 산이며 저 아래에 보이는 바다는 흑해입니다.

● 제우스의 의도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이 기록에서 보듯이,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 자가 헤라클레스였기에 제우스는 화를 내지 않았고 또 프로메테우스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제우스의 명예를 지상에서 드높인 자이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풀어준 것은 결국 제우스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헤라클레스에 대한 제우스의 기대와 사랑은 대단했으며, 헤라클레스가 죽어 육신이 다 불타버린 후에도 그를 천상으로 불러들여서 불멸의 신과 나란히 앉게 했습니다. 영웅이 신으로 승격된 것은 헤라클레스가 유일합니다.

● 올림포스의 쿠데타를 피해나간 제우스

어쨌든 올림포스의 최대의 비밀은 알려졌습니다. ‘테티스’라는 답을 듣고 제우스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우스는 늘 테티스의 미모를 보고 언제 그녀에게 접근할까 생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가 이오를 사랑하여 그리스 여러 가문이 탄생되고, 또 다나에 혹은 알크메네에게 씨를 뿌려 불후의 영웅들이 탄생되었지만, 만약 테티스와 사랑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여 제우스를 치고 새로운 올림포스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미리 그 아이를 낳게 될 여신이 테티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제우스는 권좌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티스는 누구인가요?

다) 여신 테티스는 누구인가

● 테티스와 헤라의 관계

테티스는 바다의 신 네레우스(Nereus)와 도리스(Doris) 사이에서 태어난 50명 혹은 100명이라고도 하는 그 많은 딸들, 즉 네레이데스(Nereides) 중 한 명입니다. 이 많은 딸 중에서 우리는 테티스와 함께 포세이돈의 아내가 되는 암피트리테(Amphitrite)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제우스의 씨를 받지 않고 헤라가 홀로 낳은 헤파이스토스를 제우스가 미워하여 발로 걷어차 올림포스 산에서 렘노스 섬으로 떨어뜨려 버렸을 때, 그 헤파이스토스를 받아준 여신이 바로 테티스입니다. 또한 헤라가 그녀의 유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헤라와 좋은 관계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제우스의 사랑이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와의 결혼

그런데 제우스 뿐 아니라, 바다의 으뜸 신 포세이돈도 테티스를 탐내던 중이었습니 다. 헤르메스로 부터 테티스가 아버지를 능가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테티스를 포기하고, 테티스를 신이 아닌 인간 펠레우스(Peleus)와 결혼토록 합니다.

[5-5]

이 그림은 코르넬리스 반 하르렘(CORNELIS VAN HAARLEM)의 작품으로서,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저 유명한 트로이아 전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테티스의 남편 펠레우스는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에서 황금양피를 찾아오는 55인의 영웅들 중의 한 사람이며, 장차 트로이아(Troia) 전쟁의 영웅이 되는 아킬레우스(Achilleus)의 아버지입니다. 즉 테티스는 펠레우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를 낳은 것입니다.

[5-6]

르노(Regnault)의 이 그림은 아킬레우스가 반인반마, 즉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켄타우로스(Kentauros) 중에서 현자로 소문난 케이론으로 부터 활쏘기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케이론은 아킬레우스 뿐 아니라, 이아손 그리고 테세우스 등 그리스 영웅들에게 활쏘기, 말 타기 등의 무술 교육시킨 켄타우로스입니다. 이아손과 테세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킬레우스는 인간 아버지인 펠레우스의 피를 받고 태어났어도 후에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일진대 만약 그가 천상의 신 제우스를 아비로 두었다면 필경 올림포스를 뒤엎을 빛나는 신, 무시무시한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말에 겁을 먹은 제우스는 테티스를 부인으로 삼아 아들을 잉태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그녀를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시킴으로써, 자신의 파멸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것입니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제우스의 핏줄을 받은 신이 아니라, 인간 펠레우스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기에,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제우스는 계속 올림포스를 지배하는 천상의 신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7]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을 루벤스가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나중에 트로이아 전쟁에 대하여 공부할 때, 테티스와 아킬레우스에 관하여 보다 많은 그림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영웅들을 제거하는 제우스의 계략

제우스는 이렇게 하여 올림포스의 우환을 없앴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트로이아 전쟁을 통해, 아킬레우스를 포함하여 신들에게 대드는 인간 세상의 영웅들의 씨를 말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영웅들이 소멸되는 아르고호의 원정대, 두 차례에 걸친 테바이 전쟁 그리고 트로이아 전쟁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살펴보고, 신화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5.2 제우스가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Pandora)를 만들다

가) 판도라, 제우스의 속임수

● 인간을 불행하게 할 여성 판도라

천둥이 낙이라는 제우스 몰래 프로메테우스가 회향풀 줄기 속에 불을 넣어 인간에게 갖다 주었을 때, 제우스는 분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여, 어느 누구보다도 꾀가 많은 자여,
그대는 불을 훔치고 나를 속이고는 좋아하고 있구려.
하나 그것은 그대 자신에게도 후세의 인간들에게도 큰 화가 되리라.
나는 불의 대가로 그들에게 재앙을 줄 것인즉,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재앙을 꾀안으며 마음속으로 기뻐하게 되리라.”

그러고 나서, 제우스는 손재주 좋은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명하여 물로 흙을 개어 그 안에다 인간의 목소리와 힘을 넣되 불사의 여신들의 얼굴을 닮은 아름답고 사랑스런 여인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태어난 인류 최초 여인에게 제우스는 ‘모든 선물을 받는 자’라는 의미의 ‘판도라’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결국 그 전의 모든 인간들은 남자였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불을 훔친 인간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여자가 인간들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일까요?

● 남성 중심적 신화와 페미니스트

그리스 신화는 남성 중심적입니다. 모계중심 사회에게 부계 중심 사회로 옮겨갈 때의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 가부장적인 힘과 폭력이 드세어지는 모습을 신화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이 그리스 신화 속의 여성들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나선 것은 신화의 이런 성격 때문이고, 지금까지 신화 해석도 남성 중심이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페미니스트의 이런 견해는 나중에 우리가 더 소개할 것입니다.

●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의 결혼

우선 제우스는 만들어진 인류 최초의 여자 판도라에게 아테네를 시켜서 수공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했고, 아프로디테에게 명하여 그녀의 가슴 속에 매력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일상사에 대한 상념을 넣도록 했으며, 헤르메스로 하여금 교활한 기질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는 여신처럼 아름답고 고운 베를 짤 수 있는 수공의 기술을 지녔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고귀한 성격이 부여되지 않았

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판도라를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로 줍니다.

[5-8]

마시는 컵의 장식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판도라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9]

이것은 쿠쟁(Cousin)이 그린 판도라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에바 프리마 판도라이며, 원경이 신화이후 인간들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서 신화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판도라는 아주 고운 살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 여성은 불행의 시작?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죄로 쇠사슬에 묶여 카우카소스 산에 쫓겨나기 전,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절대로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고 다시 돌려주라고 당부했지만, ‘나중에 아는 자’라는 뜻의 에피메테우스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제우스로 부터 판도라를 받아 아내로 삼았고, 재앙을 당한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5-10]

엘 그레코(EI Greco)의 작품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 부부입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가 너무 아름다워 형의 경고를 잊고 덥석 판도라를 품에 안았지만, 그것은 제우스의 완벽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갖다 준 불의 축복에 대한 제우스의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도라에게서 여자들의 종족이 비롯되었는데,
남자들과 함께 살 때에는 그들은 인간들에게 큰 고통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고 신화가 모두 여성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신들의 엄청난 노력과 활동으로 신화의 세계가 매우 균형 잡혀 있으며 영웅들의 업적들도 여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판도라는 여신이 아니라 인간 여성이니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최근 여성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이지요.

나) 호기심의 포로-‘판도라의 상자’

● 에피메테우스 집에 있는 항아리의 비밀

[5-11]

항아리를 바라보고 있는 판도라의 모습

자, 그렇다면 재앙이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판도라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인간의 종족은 지상에서 재앙과는 관계없는 안락한 생활을 하였으며, 힘겨운 노동도 할 필요가 없었으며, 병도 없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판도라가 아내로 거처하는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세상의 나쁜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열면 그 나쁜 것들이 세상으로 다 나올테니 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에게는 필요 없는 것들이어서 에피메테우스가 항아리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고, 새로 집에 시집온 아내 판도라에게 그것을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가 인간 및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면서 나쁜 것들은 따로 모아 항아리에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후대의 신화에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즉 항아리가 에피메테우스 집에 보관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집 안에 잘 놔두고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이용한 술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판도라가 열어볼 것이라는 것을 제우스는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5-12]

단테 로세티(Dante Rossetti)의 이 그림도 상자를 들고 궁금증에 빠져 있는 판도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 판도라가 그 항아리를 열다

[5-13]

에피메테우스 든 제우스 든 간에 판도라는 절대로 이 항아리의 뚜껑을 열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지만, 호기심 많은 판도라는 궁금증을 삭이지 못하고 워터 하우스(Waterhouse)의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뚜껑을 열어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인간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들의 삶에 나쁜 것들이 항아리로 부터 나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재난들, 온갖 육체적 병들,

질투, 원한, 복수심 같은 사악한 마음들이 다 나와 온 세상으로 날아가 퍼졌던 것입니다. 판도라는 놀라서 황급히 항아리의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질러진 물인 것이지요. 곧바로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오직 ‘희망’이란 것만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 항아리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판도라로 하여금 인류에게 재앙을 갖다 주리라는 제우스의 뜻은 이렇게 관철되었다.

● 갇혀 버린 ‘희망’

이 세상에는 희망도 갇혀버린 셈입니다. 과연 누가 판도라의 그 항아리를 다시 열어 희망을 세상에 퍼뜨릴지 그것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헤시오도스에는 분명히 ‘항아리’라고 쓰고 있지만, 후대 신화이야기꾼들에 의해 항아리가 상자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도라가 호기심에 겨워 열어 제친 이 항아리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헤시오도스는 『노동과 나날』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하나 여자가 두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들어올려, 그것들을
모두 내 보내니 그녀는 인간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었던 것이요.
오직 희망만이 거기 부술 수 없는 집 안에,
항아리의 가장자리 안에 남고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으니
그러기 전에 여자가 항아리의 뚜껑을 도로 놓았기 때문이요,
아이기스를 가지신 구름을 모으시는 제우스의 뜻에 따라.
하나 그 밖의 무수히 많은 고통들은 인간들 사이를 떠돌고 있소.
그리하여 육지도 재앙으로 가득 찼고 바다도 재앙으로 가득 찼소.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요.

“아이기스를 가지신 구름을 모으시는 제우스”라는 말에서, 아이기스(Aegis)란 제우스의 염소 가죽 방패로 적군을 놀라게 하고 아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가장자리는 뱀의 머리들로, 그 한가운데는 보는 이를 돌로 보이게 하는 괴물 메두사의 머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후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에서는 아테네 여신이 이 방패를 들고 다닙니다. “구름을 모으시는 제우스”란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 징벌하는 제우스의 능력과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신화 이야기에서 제우스 앞에 종종 따라 붙는 수식어입니다.

다) 엘뤼시온(Elysion)의 들판

● 지상낙원에서의 추방

프로메테우스가 금지된 불을 훔쳐냄으로써 제우스로부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제우스가 여성 판도라를 만들어 그녀로 하여금 인간 세상에는 온갖 나쁜 것들이 퍼져나가도록 한 것은 분명 인간들이 지상 낙원으로 부터 추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영웅들이 사후에 가는 낙원

기독교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선악과를 뺏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문명에 대하여 인간이 인식하는 순간,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자연에 혹은 신의 의지에 개입하는 순간, 하늘이 내린 낙원의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 낙원은 ‘엘뤼시온’이라고 불리는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 극락세계로 갈 수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길을 한 구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반은 신의 피를 받고 받은 인간의 피를 받아 태어난 그리스 영웅들은 사후에 그 엘뤼시온의 낙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엘뤼시온에 가는 길

엘뤼시온에 이르는 위해서는 먼저 망각의 강 ‘레테’를 건너야 합니다. 레테 강을 건너면 이승의 모든 행, 불행을 다 잊습니다. 이제 이승의 추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조용히 흐르는 ‘망각의 강’, 이 강물을 마시는 자는 전생의 삶과 존재, 희로애락을 모두 잊는다”라고 영국 시인 밀턴은 『실락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 무한지옥이나 엘뤼시온이나

망각의 강 너머 펼쳐지는 벌판에서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무한지옥 타르타로스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야 극락의 벌판인 엘뤼시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길로 가느냐가 망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무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엘뤼시온의 벌판으로 초대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 엘뤼시온에 대한 묘사

19세기 신화학자 토마스 벌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그리스 신화는 거의 모두 그의 저서로 부터 온 것인데, 그 벌핀치는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묘사하고 있는 엘뤼시온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엘뤼시온이 지하세계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쓰고 있다. 이 행복의 나라, 극락의 들판에는 눈도 비도 오지 않는다. 추위도 더위도 없다. 늘 서풍이 산들산들 분다.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음이 없는 이 땅에서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름 높은 라다만튀스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

저승에는 아야코스, 미노스, 라다만튀스 같은 공정한 재판관이 있어서 이들은 혼령을 재판하여 착한 혼령은 엘뤼시온으로 보내고 악한 혼령은 무한지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5-14]

[5-15]

[5-16]

파리의 개선문에 이르는 이 넓고 멋진 대로 이름이 바로 “엘리시온-들판”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샹젤리제’입니다. 과연 파리의 이 거리가 낙원일까요? 아니면 낙원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모르고 영속하는 행복의 들판, 신화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도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적 업적을 이루면 그 곳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판도라의 상자 속에 갇힌 희망을 다시 꺼내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는 신에게 도전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의지 혹은 그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 헤라클레스의 용기와 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심화 학습]

이제 심화 학습인데, 여기서 여성의 호기심과 상자에 얹힌 신화를 더 공부하도록 합시다.

◆ 에로스(Eros)와 프쉬케(Psyche)의 사랑 ◆

■ 프쉬케의 상자

가) 미소년 에로스(Eros)의 등장

● 에로스는 사랑이다

여러분은 에로스(Eros)라는 말을 아시죠? 에로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도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는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 추한 아프로디테와 청년 에로스

이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 이야기가 기원전 2세기 로마 작가 아풀레이우스(Apuleius)가 쓴 『황금 나귀』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 정통 신화라기 보다는 후대 신화이야기꾼인 아풀레이우스가 신화의 인물을 등장시켜 민담처럼 묘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의 연인 프쉬케를 질투하며 그녀에게 마치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12가지 과업을 주었듯이, 하기 어려운 4가지 과제를 던지며 그녀를 못살게 구는데, 이것은 빼어난 미로 모든 이를 유혹할 수 있었던 아프로디테가 늙어 이제 아들의 연인을 구박하는 천박한 여인으로 위상이 추락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로스가 성장한 미소년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이 이야기에서 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신화에서 에로스는 늘 날개달린 어린 아이 모습으로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곁을 따라 다니며 남들의 사랑놀이를 즐기는 장난꾸러기로 나오고 있죠.

[5-17]

카라치(Carracci)의 작품인 이 그림은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연인 아도니스가 서로 사랑하려는데 에로스가 장난스럽게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둘기 두 마리는 아프로디테를 상징합니다.

나) 프쉬케와 사랑에 빠진 에로스

● 절세의 미인 프쉬케

자, 프쉬케는 누구인가요? 어느 왕의 막내딸로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처녀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 나라 모든 왕자들이 모여들어 그녀를 보고자 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미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5-18]

지오르다노(Giordano)의 <사람들로 부터 칭송 받는 프쉬케>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보면 프쉬케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아프로디테가 에로

스와 함께 이 광경을 바라보며 에로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질투로 인한 프쉬케의 고난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아프로디테의 수모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수근 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면 둘째가라도 서러워 할 아프로디테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의가 아니더라도 신이란 인간의 도전을 용서하지 않는 법입니다.

● 에로스의 금 화살

프쉬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불러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프쉬케의 어깨에 금 화살을 맞춰서 프쉬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수컷을 그리워하다 상사병으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로스의 금 화살을 맞으면 누구나 사랑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 에로스의 화살로 인하여 벌어지는 신화의 주요테마는 아주 많습니다. 그 관계되는 신화를 배울 때 마다 에로스의 화살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컨대,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도 에로스의 화살로 인한 것이었고, 지하의 신 하데스가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는 것도 하데스가 에로스의 화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 상사병에 걸린 에로스

어머니의 단호한 부탁을 받은 에로스는 지체 없이 프쉬케에게 날아갔습니다. 아름다운 프쉬케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프쉬케의 곁에 바싹 앉았습니다. 그녀의 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상사병으로 죽게 될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로스는 어머니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화살을 그녀의 어깨에 살짝 찔러 약간의 독만 몸에 들어가게 하면, 그녀는 헛된 상사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화살을 살짝 그녀의 어깨에 대는데 그 화살촉을 느꼈던지 프쉬케는 갑자기 눈을 뜨고 에로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에로스는 인간 프쉬케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긴장되어 있던 에로스가 놀라 자신이 들고 있던 화살촉에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이 찔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사병에 걸린 것은 반대로 에로스였습니다.

[5-19]

프랑수아 제라르(GÉRARD)의 작품이며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서울 용산국립

박물관에서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개 침실에 있는 에로스와 프쉬케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이 작품은 배경이 어느 산속인 것으로 봐서 서풍의 신 제뽀로스에 의하여 그곳에 실려 온 프쉬케가 에로스를 만나 그와의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5-20]

뤽스티엘(RUXTHIEL, Henri-Joseph)의 이 작품은 서풍의 신 제뽀로스가 프쉬케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0-1]

부그로(Bouguereau)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쉬케가 납치되는 모습을 매우 낭만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는 제뽀로스가 프쉬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가 직접 프쉬케를 가슴에 품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로스는 프쉬케를 서풍의 신 제뽀로스를 통하여 자신이 마련한 숲 속의 궁전으로 오게 한 후, 그녀에 대한 사랑에 빠져 매일 밤 그녀의 침실을 찾아갑니다.

[5-21]

이것은 다비드의 그림입니다. 창밖으로 날이 밝아오자, 에로스가 행복한 얼굴표정으로 침대를 내려오는데, 그의 옆에 화살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에로스는 늘 날개를 달고 있으며 화살을 들고 다닙니다.

[5-22];

안토니오 카노바(Antonio Canova)의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결합을 완벽한 조형미로 재현한 걸작입니다. 그림과는 달리 이 조각에서 에로스의 표정은 매우 진지합니다.

다) 프쉬케의 의심

● 에로스를 죽이려는 프쉬케

[5-23]

프라고나르(Fragonard)의 <언니들에게 에로스로부터 받은 선물을 보여주는 프쉬케>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복한 프쉬케를 그녀의 언니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말합니다. “매일 밤 네 방에 오는 신랑이 아마 괴악하고 요사스런 뱀일지

도 몰라. 그러니 등잔과 낫을 구해 놓고 있다가 남편이 밤에 또 나타나면 그 등잔 불을 켜서 확인해 보고 추호도 망설이지 말고 낫으로 목을 쳐라.” 이렇게 계속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두운 밤에 다가와 사랑하고 동 트기 전에 떠나는 남편의 모습을 프쉬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니들의 그 말에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더욱 커지고 결국 억누를 수가 없게 된 어느 날 밤, 프쉬케는 언니들의 말대로 등잔과 낫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 정체를 드러낸 에로스

에로스는 그날 밤도 사랑에 겨워 프쉬케를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마치고,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프쉬케는 잠든 척을 한 것이겠죠. 그녀는 살짝 일어나 등잔불로 남편을 비추니 뱀이 거뿔 멋진 모습의 미소년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더 자세히 보려고 등잔을 에로스의 얼굴 바짝 갖다 대는 순간, 등잔의 뜨거운 기름방울 하나가 에로스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5-24]

쥘세페 크레스피의 그림을 보면, 놀라 잠이 깬 에로스가 자신을 보지 말라고 프쉬케를 향하여 손을 내젓고 있습니다.

● 사랑을 잃은 프쉬케

기름방울 때문에 잠이 깬 에로스는 자신을 의심한 프쉬케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고 말 한마디 없이 창문을 통해 나가다가 날개 짓을 멈추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리석구나, 프쉬케여,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이더냐? 나는 어머니의 명령을 어겨가며 그대를 아내로 맞았더니, 그런 나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을 도려내려고 하다니! 내 그대에게 따로 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나, 오직 영원히 헤어질 따름이다. 의심이 깃든 마음에 어찌 사랑이 함께 기거할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에로스는 한줄기 빛처럼 먼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프쉬케가 겨우 몸을 추스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그 멧졌던 궁전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프쉬케는 침식을 잊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에로스를 찾으려 돌아다녔지만, 하찮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신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법입니다.

[5-25]

이 동상은 파주(Pajou)의 <버림받은 프쉬케>입니다. 프쉬케의 아름다운 몸매와 애처로운 표정이 대조적입니다.

● 데메테르 여신의 충고

[5-26]

데메테르 여신

온 나라를 헤매다가 우연히 들어간 신전이 바로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 신전이었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프쉬케를 불쌍히 여겨 아프로디테 한테 가서 용서를 빌면 여신께서 노여움을 풀고 아들 에로스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프쉬케가 데메테르를 따라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신을 만나자, 아프로디테는 노기 띤 얼굴로 프쉬케를 야단친 후, 프쉬케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네 가지 과업을 차례로 시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프쉬케의 상자’와 관련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과업입니다.

[5-27]

지오르다노의 이 그림은 프쉬케가 어려운 네 가지 과업을 수행할 때 보이지 않는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 아프로디테의 분노 및 질투

●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프쉬케

아프로디테는 프쉬케에게 상자를 주면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 지하의 신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로 부터 ‘아름다움’을 받아 상자에 담아 오라는 일을 시킵니다. 지하 세계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프쉬케는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있는 첨탑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뛰어 내리는 것이 곧 저승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 첨탑은 말을 하면서 저승 세계로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곳에 가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일들, 저승의 강을 어떻게 건너며 저승을 지키는 머리가 셋인 괴물 개 옆을 어떻게 무사히 지나야 하는지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페르세포네가 그 상자에 ‘아름다움’을 담아주면, 아프로디테에게 갖다 줄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5-28]

존 로댕 스펜서-스텐호프의 그림입니다. 페르세포네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프쉬케가 저승의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이 때 저승의 뱀사공 카론에게 뱀삿으로 동전 한 닢을 내밀자, 카론이 무언가를 프쉬케의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승에 가려도 노잣돈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 호기심에 상자를 연 프쉬케

여러분들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도라도 절대로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프쉬케가 이 상자를 침탐에서 나는 목소리의 당부대로 열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신화에서 ‘절대로’라는 말은 늘 깨지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절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곧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떤 사태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던 프쉬케는 판도라처럼 결국 그 상자를 오는 길에 열어보고야 맙니다. 상자 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세포네가 아프로디테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잠의 신 휴프노스에게서 얻어둔 잠의 씨를 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프쉬케가 상자를 열자, 잠의 씨들이 나와 프쉬케를 뒤덮었습니다. 프쉬케는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있던 에로스는 프쉬케가 그동안 속죄의 마음으로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시킨 그 힘든 일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잠에 빠진 그녀를 구원합니다.

“불쌍한 프쉬케여, 그대는 호기심으로 자칫 목숨을 잃을 뻔 했도다!”

[5-29]

에로스가 잠이 든 프쉬케 곁으로 다가가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프쉬케의 오른손에 그녀가 열어본 상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반 다이크의 그림입니다.

● 에로스와 프쉬케의 결합

에로스는 제우스의 도움으로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노여움을 푸는데 성공했고, 결국 이 둘은 신들의 축복을 받으며 부부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5-30]

[5-31]

에로스와 프쉬케가 신들의 축복 속에서 결합하고 결혼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학습 정리]

테티스가 아비를 능가할 아들을 낳게 되는 여신이라는 것을 프로메테우스가 실토한 것은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 직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친 대가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던 프로메우스는 해방된 것인데, 이는 신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구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준 헤라클레스는 죽어서 신들의 반열에 오른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간 즈음에 제우스는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를 만들어 그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불행과 악을 주게 됩니다. 즉 여성 때문에 인류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신화의 남성 중심적 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에 걸쳐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가 누구이고, 왜 벌을 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벌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에서 우리는 에로스와 프쉬케에 대하여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아프로디테가 나이 먹은 여인으로 등장하고 에로스가 성인 청년으로 나오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미에 도전하여 그녀로부터 모진 시련을 겪는 프쉬케가 결국은 에로스와 결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화의 종결과 프쉬케라는 새로운 미의 여인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서양 문학에서 프쉬케가 종종 시련을 겪는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신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학습평가]

- ▶ 제우스를 앞서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는 여신은 누구인가요? 답 : 테티스
- ▶ 쇠사슬에 묶인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켜주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 : 헤라클레스
- ▶ 제우스가 만든 인류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 판도라
- ▶ 에로스와 사랑하다가 아프로디테로부터 모진 시련을 겪는 여인은 누구인가요?
답 : 프쉬케

[6주차]

6. 아르고호 원정대-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과 파멸(1)

[학습개요]

- ▶ 프릭소스와 헬레가 황금양을 타고 그리스를 탈출하다
- ▶ 외딴 신발을 신고 이아손이 나타나다
- ▶ 이아손이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로 출발하다
- ▶ 메데이아의 사랑과 갈등 : 조국이나 사랑이나
- ▶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손에 넣다

그리스 영웅에 이아손(Iason)이 있습니다. 그는 54명의 다른 영웅들과 함께 아르고호를 타고 저 멀리 흑해 변에 있는 나라 콜키스에 가서 황금양피를 찾기 위하여 항해를 떠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콜키스에 도달한 그리스 영웅 이아손은 콜키스 왕인 아버지 아이에테스를 배신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의 사랑에 힘입어 황금양피를 얻어낸 다음 콜키스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성공적으로 그리스로 귀환합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나우티카』(『아르고호의 모험』, 김원익 번역)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이 황금양피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즉 프릭소스와 헬레가 황금양을 타고 그리스를 탈출하는 모습과 외딴 신을 신고 나타나는 그리스 영웅 이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양피를 찾기 위하여 이아손이 그리스 영웅들을 규합한 후, 흑해 변에 있는 나라 콜키스로 떠나는 장면과 이아손을 사랑하게 되는 콜키스 공주 메데이아의 사랑과 갈등에 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결국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아 황금양피를 손에 넣고 콜키스를 다시 출발하는 장면까지 이번 주에 공부할 것이고, 그리스로 귀환하는 과정, 또한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의 비극, 사랑의 파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학습내용]

6.1 프릭소스와 헬레가 황금양을 타고 그리스를 탈출하다

가) 프릭소스의 황금 양과 동방의 나라 콜키스

● 데우칼리온의 자손들-아이올로스(Aiolos)의 세 아들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에서 부인 뿔라와 함께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아버지가 된 데우칼리온이 돌을 어깨 너머로 던져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냈다고 우리는 앞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에서 생겨난 인간이 아니라, 데우칼리온과 뿔라의 몸에서 직접 태어난 유일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헬렌(Hellen)입니다. 헬렌은 그리스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리스인들의 선민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류들은 돌에서 탄생했지만 자신들의 직계 조상은 데우칼리온과 뿔라의 직접적인 육체적 결합에서 태어난 진정한 의미의 인류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문명을 헬레니즘(Hellenism)이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헬렌의 후손들인 헬레네스(Hellenes)가 이룩한 문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렌의 직계로 아이올로스(Aiolos)가 있는데 그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아타마스(Athamas), 둘째는 크레테우스(Kretheus), 그리고 셋째는 살모네우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아르고호 원정대의 신화와 관련되는 사람은 첫째 아들 아타마스, 둘째 아들 크레테우스 그리고 셋째 아들 살모네우스의 딸인 튀로(Tyro)입니다.

● 프릭소스(Phrixos)를 제물로 바치려는 이노(Ino)

아이올로스의 큰아들 아타마스는 보이오티아 지방 오르코메노스(Orchomenos)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네펠레 사이에서 아들 프릭소스와 딸 헬레(Helle)를 두고 있는데, 부인 네펠레가 죽자, 이노를 후처로 얻게 됩니다. 이노는 아타마스에게서 두 아들 레아르코스와 멜리케르테스를 낳고는, 아타마스의 전처소생인 프릭소스와 헬레를 몹시 구박합니다. 이노는 테바이를 건설한 카드모스의 딸이니, 좋은 가문 출신이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아타마스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전처의 아들 프릭소스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녀는 밭에 뿌리는 곡물의 씨를 몰래 모으게 해서 불에 구운 후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불에 구웠으므로 농부들이 뿌린 씨앗에서는 당연히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이 음모를 모르고 있는 왕은 놀라서 이 흉작이 무엇 때문인가 싹을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싹을 전하는 사내를 매수하여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저 젊은 왕자를 제물로 바치지 않는 한 곡식의 싹은 트지 않으리라, 싹은 이렇게 나왔사옵니다.”

사람들은 기근이 올까 두려워 싹대로 프릭소스를 제물로 바치도록 왕을 몰아세웠

습니다. 사람이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당시 그리스에서는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고, 또한 신탁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프릭소스와 헬레의 그리스 탈출

결국 왕의 결정에 따라 프릭소스는 제단에 뉘어졌습니다. 그 젊은 피가 대지의 신에게 바쳐지려 하는 순간 온 몸이 금빛 털로 싸인 양이 나타나 프릭소스와 누이동생 헬레를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지하세계에 있던 네펠레는 제물로 바쳐지려는 자식들을 구해달라고 헤르메스에게 애원했는데, 헤르메스가 이를 받아들여 보내준 양이었습니다. 황금양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고, 새처럼 날 수도 있었습니다. 프릭소스와 헬레는 이 황금양을 타고 멀리 동쪽 끝자락에 있는 콜키스의 아이아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부터 그리스와 동방의 나라에 대한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 황금양의 가족, 즉 황금양피를 그리스 영웅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리스의 세계 지배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6-1]

아무튼 이 삽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금 양을 타고 콜키스로 두 남매가 도망가는데, 여동생 헬레는 도중에 실수로 바다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헬레가 떨어져 죽은 바다는 그녀의 이름을 따 아직도 헬레스폰토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터키쪽 방향의 에게해에 위치한 다르달네스 해협을 일컫습니다. 다행히 헬레의 오빠 프릭소스는 콜키스의 아이아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나) 황금 양피와 아이에테스

●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는 누구인가

이 당시 콜키스에는 아이에테스라는 자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테스의 혈통은 거신 족에서 받은 것입니다. 즉 아이에테스의 아버지는 태양신 헬리오스인데, 헬리오스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여섯 아들 중 하나인 휘페리온의 아들이니, 결국 아이에테스는 거신족의 당당한 직계 자손인 것입니다. 헬리오스는 아이에테스와 함께 키르케와 파시파에라는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에게는 두 딸 칼키오페(Chalkiope)와 메데이아(Medeia) 그리고 아들 압쉬르토스(Apsyrtos)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자녀, 칼키오페, 메데이아, 압쉬르토스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메데이아가 아르고호 원정대 이야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 프릭소스를 환대하는 아이에테스

아이에테스는 황금양을 타고 그리스의 오르코메노스에서 도망 온 프릭소스를 손님으로 받아주고 자신의 딸 칼키오페를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 보답으로 프릭소스는 자신이 타고 왔던 황금 양을 잡아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황금양피는 아이에테스에게 선물합니다. 아이에테스는 그것을 전쟁의 신 아레스의 숲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 용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이에테스는 이 황금양피를 지켜야만 목숨이 부지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칼키오페는 프릭소스 사이에서 아르고스 등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아버지 프릭소스가 죽자 유지를 받들어 배를 타고 콜키스를 떠나 그리스로 가는데 그 도중에 아르고호의 영웅들을 만나 그들에게 항로를 안내하며 다시 콜키스로 돌아와, 황금양피를 빼앗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왜 황금양피가 참나무가지에 걸려 있는가

그런데 황금양피가 참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사연은 이렇습니다. 프릭소스가 죽자, 아이에테스 왕은 콜키스의 장례방식에 따라 그를 황금양피로 감싸서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프릭소스의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자, 아이에테스는 다른 가족으로 프릭소스의 뼈를 감싸서 나무에 걸고 황금양피는 참나무에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이 황금양피를 죽지도 자지도 않고 지키는 무시무시한 용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카우카소스 산의 티파온의 바위 옆에서 낳은 괴물입니다. 티파온이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의 번개를 맞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육중한 손을 그 바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 뱀이 태어난 것입니다. 거신 우라노스의 피가 바다에 떨어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했고, 대지에 떨어져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倪에스가 태어났으며, 우리가 곧 배우게 되겠지만,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버리자, 천마 즉 하늘을 나는 말 페가소스가 뛰쳐나온 것과 같은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6.2 외딴 신발을 신고 이아손이 나타나다

가)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 이올코스의 왕권을 노리다

● 크레테우스는 누구인가

아이올로스의 큰 아들 아마타스는 방금 우리가 그의 자식들인 프릭소스와 헬레를 말하면서 언급했고, 이제 둘째 아들 크레테우스에 관한 것을 알아보시다. 크레테우스는 테살리아 지방에 있는 이올코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동생 살모네우스의

딸 튀로와 결혼하는데, 튀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아 이미 넬레우스와 펠리아스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아 남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크레테우스는 그 사실을 모르고 튀로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고, 그녀로 부터 아이손을 비롯하여 세 아들을 둡니다. 또 아이손은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아손인 것입니다.

● 이올코스의 왕권을 찬탈한 펠리아스

크레테우스가 죽자, 펠리아스는 그의 쌍둥이 형제인 넬레우스와 자신 중에서 누가 왕위계승자가 될지 궁금하여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 보았는데, 펠리아스가 왕이 될 것이지만, “너와 같은 핏줄을 지닌 자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다. 외딴신발을 신은 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신탁이 나왔습니다. 신탁대로 이올코스의 왕이 된 펠리아스는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 포세이돈을 위해 제물을 바치고 향연을 베풀었다. 온 나라가 잔치로 떠들썩할 때, 어느 건장한 이방인 청년이 오랜 여행 끝의 남루한 옷차림과 덩수룩한 수염, 긴 머리카락을 하고 더구나 외딴 신을 신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이올코스에 이미 짝 퍼진 소문, 즉 “외딴신발을 신은 자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서 그 외딴 신발을 신은 청년을 유심히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모두들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아손이 그런 모습으로 이올코스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 케이론에 의하여 교육받은 이아손

사실 아이손이 튀로와 크레테우스의 적자 중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올코스의 합법적인 왕이었고, 서자인 펠리아스는 그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 펠리아스로 부터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펠리아스로 부터 왕위를 탈취 당한 이아손의 아버지 아이손은 다섯 살 밖에 안 된 아들 이아손을 몰래 펠리온 산으로 보냈습니다. 펠리아스가 어린 이아손을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펠리온 산에는 반인반마 즉 허리 위로는 사람의 모습, 허리 아래로는 말의 모습을 한 켄타우로스(kentauros)인 케이론(Cheiron)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론으로 부터 이아손은 15년 동안 무술, 웅변술 등 나라를 향후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6-2]

많은 그리스 젊은이들을 교육시킨 케이론

● 케이론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러면 케이론은 어떻게 하여 태어났을까요? 우라노스의 아들 크로노스가 아직 올림포스의 티탄 신족들을 다스리고 있고, 제우스는 크로노스를 피해 크레테 섬의 이데 산 옆 동굴에서 크로노스 몰래 키워지고 있을 때, 크로노스는 정식 부인 레아를 속이고 필뤼라(Philyra)와 동침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뤼라도 거신 오케아노스의 딸이었습니다. 레아 여신은 그들이 동침하고 있는 곳을 급습했는데, 부인에게 불륜의 장면을 들킨 크로노스가 당황하여 긴 갈기를 한 말의 모습으로 그 곳에서 뛰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뤼라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그 곳을 떠나 험악한 펠라스고이인들의 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반은 말, 반은 신을 닮은 거대한 케이론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 절정의 순간, 크로노스가 갑자기 말로 변신했기 때문에 반인반마가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케이론은 크로노스와 오케아노스의 피를 받은 거신 족에 속하는 켄타우로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아손 뿐 아니라, 나중에 상세히 공부하겠지만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인 아킬레우스도 이 케이론의 손에 맡겨져 무술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아손, 동방의 나라 콜키스로 가서 황금양피를 가져오기로 하다

● 신발 한 짝을 잃은 이아손

아무튼 케이론에게서 교육을 받고 또 케이론으로 부터 아버지 아이손은 이올코스의 왕이었고, 펠리아스로 부터 왕권을 탈취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20살 청년 이아손은 단 하루도 더 펠리온 산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부인 펠리아스에게 가서 왕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펠리온 산을 내려와 이올코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신탁대로 모두 이루어지기 위한 운명의 순간이 옵니다. 즉 이아손은 이올코스로 들어오기 위해 아나우로스 강을 건너려 하는데, 어느 힘없는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파는 건장한 젊음인 이아손을 보자, 물살이 세고 바닥이 진창이니 좀 업어서 강 건너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건실한 청년인 이아손이 이를 거부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 노파를 업고 건너다가 한발이 진창에 빠졌고, 센 물살 때문에 노파를 업은 채 그 신발을 다시 챙길 수 없어 이아손은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외딴 신을 신은 채 이올코스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 헤라와 이아손

신탁대로 외딴 신을 신도록 만든 이 노파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아손 앞에 노파로 변신하여 나타난 헤라 여신이었습니다.

[6-3]

강을 건넌 이아손이 노파로 변신했던 헤라여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헤라 여신은 이렇게 이아손이 외딴 신을 신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됨이를 살펴본 것입니다. 헤라 여신이 이아손의 아르고호 원정 내내 그를 도와준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는데, 사실 헤라는 펠리아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아손을 도와서 펠리아스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펠리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헤라 신전에서 사람을 죽인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펠리아스의 아버지 크레테우스는 본처인 튀로를 멀리하더니 후처 시데로(Sidero)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시데로는 전처인 튀로를 몹시 학대했는데, 튀로의 두 아들 벨레우스와 펠리아스는 그 소식을 듣고 시데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던 시데로가 헤라 신전에 숨어들었을 때, 펠리아스는 제단에서 그녀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의 신전으로 몸을 피신한 자를 끝까지 쫓아와 죽인 펠리아스의 행위에 분노한 헤라 여신은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이아손을 도와 신전을 모독한 펠리아스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6-4]

헤라 신전

● 펠리아스와 이아손의 만남

이올코스로 들어와 펠리우스 왕궁을 찾아온 이아손을 만난 펠리우스는 외딴 신발의 이아손을 보자, 델포이 신탁에서 외딴 신발을 신은 자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떠올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아손은 자신이 아이손의 아들임을 밝히고 왕위를 요구하였습니다. 펠리우스는 두려움과 당혹함을 숨기고, 짐짓 태연한 채 하며 조카 이아손을 따뜻한 말로 받아주며 자신의 딸들도 다 참석시켜 향연을 성대히 베풀어 줍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며 노랫가락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중 어느 노래가 황금 양피에 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노래는 펠리아스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의 자존심인 이 황금양피를 찾을 사람은 이아손 같은 젊은 그리스인이어야 한다고 짐짓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펠리아스의 의외의 환대에 마음이 풀렸고, 또 황금 양피 이야기에 감동된 이아손은 당장 자신이 이 황금양피를 찾아오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펠리아스는 성공하여 돌아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6-5]

교활한 펠리아스가 원정길을 떠나는 이아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콜키스에 가서 그 무섭고 용맹스런 콜키스왕 아이에테스로 부터 황금양피를 찾아올

수도 없거니와, 먼 나라 콜키스까지 향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이방인들 손에 이아손은 죽을 것이라고 펠리아스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신탁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너와 같은 핏줄을 지닌 자에게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는 신탁은 그대로 적중될 것인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아손은 황금양피를 가져오고, 어떻게 펠리아스는 그의 조카 손에 죽게 되는가? 여기에는 영웅 이아손을 사랑하는 콜키스 공주 메데이아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아르고호, 콜키스로 출발하다

가) 그리스 영웅들이 아르고호에 운명을 걸다

● 아테네 여신과 아르고호

그리스 영웅들이 타고 갈 배는 아테네 여신의 지시에 따라 건조된 아르고호였습니다. 아테네는 지혜의 신이자 기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르고(Argo)는 ‘빠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름처럼 매우 빠를 뿐 아니라, 아무리 거센 풍랑에도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또한 신기하게도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즉 말도 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배 용골 앞쪽 중앙 아치형 목재는 참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참나무에 아테네 여신이 말하는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황금양피를 갖고 아르고호가 그리스로 귀환하는 도중에 제우스의 분노로 인하여 배 맞은편에서 폭풍이 일어나 왔던 길을 되돌려 어느 섬으로 잠시 돌아갈 수밖에 없던 적이 있는데, 이 때 아르고호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영웅들의 귀에 들리고 그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아르고호의 영웅들은 배를 제대로 몰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배의 목소리는 아테네 신의 목소리인 셈입니다.

● 아르고호의 55인의 영웅

파손되지 않는 목재와 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아르고호에 몸을 싣고 이아손 등 55인의 그리스 영웅들은 저 먼 나라 콜키스를 향해 이올코스 근처의 파가사이 항구를 떠납니다. 이 아르고호 원정대 단원의 대표적인 영웅에는 이아손 외에 헤라클레스, 펠레우스, 오르페우스 등이 있습니다. 펠레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아킬레우스를 낳은 인물인데, 이것을 봐서 아르고호의 탐험이야기는 트로이아 전쟁보다 한 세대 앞서 일어난 일로 판단됩니다. 이 배가 콜키스에 도달할 때까지 수많은 모험과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폴로니오스는 『아르고나우티카』에서 아주 상세히 이 모든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만남과 사랑, 황금양피의 탈취 과정, 콜키스 군대의 추격과 메데이아의 오빠 압쉬르토스의 살해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콜키스에 이르는 항해의 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55인의 영웅들 중의 일원인 헤라클레스가 아르고호에 승선했다가 신의 뜻에 의하여 배를 떠나게 되는 장면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 아르고호를 떠나는 헤라클레스

[6-6]

아르고 원정대의 모습입니다. 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걸치고 있는 헤라클레스인 것 같습니다.

폭풍에 시달리던 아르고 호가 키오스라는 도시에 기항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르고 호 영웅 중 한 명인 힐라스는 물을 뜨러 샘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페가이라고 부르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 샘에는 근처 동굴 속에 사는 요정들이 모여 막 윤무를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6-7]

부그로의 <요정들이 사는 동굴>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신화의 그림에서 요정들을 늘 매우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맑은 샘물에 사는 물의 요정도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요정들도 이 깊은 숲 속에서 힐라스처럼 멋진 청년을 본 적이 없었던지 그를 보자 사랑의 감정에 휘감겼습니다.

[6-8]

참을 수 없는 욕정에 사로잡힌 물의 요정들은 여러분들이 워터하우스의 작품인 이 그림에서 보듯이, 멋진 힐라스에 반하여 물을 뜨려는 그의 손을 잡아당겼고, 힐라스는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요정들에 둘러싸여 정신이 없는 듯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많은 영웅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폴뤼페모스 만이 힐라스가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필경 힐라스가 숲 속의 맹수로 부터 공격을 받았거나 도둑들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칼을 뽑아든 채 힐라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때 부러진 노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전나무 한 그루 뽑아들고 배로 돌아오던 헤라클레스는 폴뤼페모스로 부터 힐라스의 비명 이야기를 듣고는 그와 함께 힐라스를

찾아 헤맵니다. 요정들이 물속으로 데리고 간 자를 영웅들이 발견해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고 다시 손풍이 불자 아르고호는 헤라클레스와 폴뤼페모스 그리고 힐라스 등 3명의 영웅들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둘러 다시 떠났습니다. 헤라클레스 등 3인을 남겨놓고 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배는 이미 육지와 멀리 떨어져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본의 아니게 하선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헤라클레스로 하여금 주어진 12가지 과업을 완수하라는 신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6.4 아르고호, 콜키스로 도착하다

가) 메데이아의 사랑과 갈등 : 조국이나 사랑이나

● 이아손과 아이에테스의 담판

오랜 항해 끝에 콜키스에 도착한 이아손은 황금양피를 얻기 위하여 항해 도중에 만난 프릭소스 아들인 아르고스와 함께 아이에테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르고스는 이아손이 누구이고 왜 이들이 여기에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로 돌아간 다던 프릭소스와 칼키오페의 자식들이 이아손 일행들과 음모하여 자신으로 부터 왕권을 탈취하려한다고 생각한 아이에테스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아손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 결과 그가 원하는 황금양피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취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아손에게 제시했습니다. 입에서 불을 뿜는 청동으로 된 황소 두 마리가 아레스의 숲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 소들에 쟁기를 달아 하루에 8에이커 넓이로 아레스 신의 거친 밭을 모두 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밭을 갈면서 뱀의 이빨들을 뿌리면 밭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성취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목숨을 내걸고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악의에 찬 제의에 당황하던 이아손은 빈손으로 돌아가 그리스 이올코스의 왕 펠리아스에게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이 제의를 당당히 받아들입니다.

● 이아손에 반한 메데이아

아버지 아이에테스와 그리스에서 온 이아손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메데이아는 이아손의 용모와 우아함에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마음은 사랑의 고통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아손이 불을 뿜는 황소와 싸우다가 죽거나 혹은 아버지 아이에테스의 손에 살해되지만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핵심인 이아손에 대한 메데이아의 이러한 사랑의 감정은 메데이아가 에로스의 화살을 맞은 후 가슴 속에서 태동된 감정이기때 인간으로서는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니다. 헤라 여신의 부탁으로 아프로디테가 아들 에로스를 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외지의 남자, 이아손에 대하여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과 그 갈등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불쌍한 나는 왜 이런 고통에 휩싸이는 걸까? 그 사람이 모든 영웅들 중 최고든 아니면 보잘 것 없는 겁쟁이든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그래, 죽을 테면 죽으라지!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좋으련만!”

[6-9]

모로의 그림인데, 그리스 영웅 이아손과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 메데이아와 칼키오페 - 두 자매의 눈물

프릭소스의 아들 아르고스는 어머니 칼키오페를 설득하여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메데이아는 헤카테 여신의 가르침으로 온갖 마술에 능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카테는 세 개의 얼굴과 몸을 가진 마법을 담당하는 여신입니다. 메데이아의 언니인 칼키오페도 자신의 아들 아르고스가 아이에테스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이미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메데이아에게 이아손을 도와주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이지만 그녀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했듯이,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향한 불같은 사랑에 빠져 혼자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두 자매는 사실 쉽게 의기투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메데이아는 언니 칼키오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갈등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는 현대 소설의 플롯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헬레니즘 초기인 기원전 250년 무렵에 쓰여진 이 작품의 현대성은 놀라운 것인데, 그러면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메데이아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이것이 나중에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했다는 메데이아의 평가에 대하여 그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 이방인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와달라고 언니가 나에게 부탁하도록 해보겠어. 언니는 아들들을 걱정하고 있으니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일어서서 걸쭉한 걸친 채 맨발로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언니의 방으로 가려고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그녀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방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녀의 발은 이렇게 하릴없이 그녀를 밖으로 몰고 갔다가 다시 안으로 데려왔다. 그녀가 나가려고 하면 수치심이 그녀를 안에 붙잡아 두었고, 수치심으로 멈추어 서면 대담한 욕망이 그녀를 밖으로 재촉했다. 그녀는 세 번째로 그걸 시도했지만 다시 멈추어 섰다. 네 번째로 다시 방에 돌

아온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메데이아는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이렇게 슬퍼하는 메데이아를 본 몸종이 언니 칼키오페에게 알려주어, 칼키오페가 메데이아를 찾아옵니다. 두 자매는 서로 심중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아손을 비롯한 그리스 영웅들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과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언니 칼키오페는 자식들을 죽음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6-10]

갈등에 사로 잡혀 궁전에서 방황하는 메데이아의 모습입니다.

● 가혹한 운명 앞의 메데이아

그러나 과연 사랑 때문에 메데이아가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하기로 하였을까요? 우리는 나중에 메데이아에 대한 재평가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단순히 그녀가 사랑을 위하여 조국을 등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 핍박도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메데이아가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상실한 맹목적인 여인은 더욱 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아손을 도울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갈등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부모와 조국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행하고 나면 자신은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돕기로 한 이후에도 몹시 방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약을 비롯하여 아주 파괴적인 온갖 마법의 약이 다 들어 있는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옷을 눈물로 흥뻥 적시도록 슬피 울었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몹시 한탄하는 동안 메데이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생명을 앗아가는 독약을 마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녀는 벌써 독약을 꺼내려고 상자의 끈을 풀고 있었다.”

이 때 행복했던 과거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메데이아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소녀 시절의 명랑한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삶에 다시 매달려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 아이에테스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행복한 여성의 삶을 이아손과 함께 되살리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혹한 운명을 죽음으로 회피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대항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아손에게 불을 뿜는 황소를 제압할 수 있는 약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

는 운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탈취하다

● 이아손에게 마법의 약을 전달하는 메데이아

약속대로 헤카테 신전에서 이아손을 만난 메데이아는 망설이지 않고 가슴 띠 속에 숨겨 놓은 마법의 약을 꺼내어 이아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사용하기 전, 우선 한 밤중에 헤카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6-11]

헤카테 여신의 모습입니다. 마법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마법의 약을 녹여서 옷을 벗은 다음 성유를 바르듯이 몸에 반질반질하게 문질러 바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엄청난 힘과 굉장한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불멸의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창뿐 아니라 방패와 검에도 그것을 발라야 해요. 그러면 땅에서 솟아난 병사들의 창끝도, 무서운 황소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견디기 힘든 화염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 약효는 단지 하루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6-12]

워터하우스의 그림인데, 메데이아가 이아손에게 마법의 약을 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 불을 뿜는 황소를 제압한 이아손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일러준 대로 마법의 약을 녹인 다음 방패와 창 그리고 칼 표면에 문질러 발랐습니다. 그 후 자신의 몸에도 약을 발랐습니다. 무기는 절대로 부러지거나 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쇠로 변했고, 이아손의 몸 안에도 무시무시한 힘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쟁의 신 아레스 혹은 황금 검을 찬 아폴론 신과 흡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아손은 불을 뿜는 황소와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황소 두 마리가 강력한 뿔로 방패를 들이받았지만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고, 끔찍한 불꽃이 황소들 주둥이에서 뿜어져 나왔지만 마법의 약이 효력을 발휘해 이아손을 보호해주었습니다. 이아손은 결국 이 황소들을 제압하고, 멍에를 씌워 8에 이커나 되는 넓은 밭을 갈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6-13]

이아손이 불을 뿜는 두 마리 황소와 당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호위 속에 앉아 구경하고 있는 아이에테스가 황소들에 맞서 조금도 물려서지 않는 이아손을 보고 놀라워하며 옆에 앉아 있는 딸 메데이아에게 뭔가 말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과업은 밭에 뱀 이빨을 뿌리고, 거기에 생겨나는 병사들을 처치하는 일이었습니다. 뱀 이빨이 뿌려진 땅에서 병사들은 이삭처럼 밭 전체에서 쑥쑥 솟아났습니다. 그 때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알려준 대로 커다란 돌을 들어 병사들 무리를 향해 던졌더니, 병사들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서로를 죽이더니 결국 모두 서로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가 이아손이 결코 성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준 과업들을 이아손은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완벽히 이루어낸 것입니다.

[6-14]

이중으로 그려진 이 그림의 전면에는 황소를 제압한 이아손이 있고 후면에는 이아손이 돌을 던지자, 서로 싸우며 죽이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 이아손이 드디어 황금양피를 손에 넣다

이아손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해낸 데는 필경 딸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아이에테스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약속했던 황금양피를 아르고호 영웅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킬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메데이아는 어차피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터이니, 끝까지 이아손을 도와 황금양피를 탈취한 후, 조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버지에게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메데이아는 한 밤중 궁전을 빠져나와 이아손이 있는 아르고호로 가서 영웅들에게 날이 밝기 전에 배를 몰아 아레스 숲 근처의 물가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아레스 숲에는 거대한 용이 참나무에 걸쳐 있는 황금양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아손과 함께 그곳에 도착한 메데이아는 주문을 외우면서, 마법의 약물을 용의 눈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진한 약 냄새가 용을 잠에 빠지게 만들었고, 이 사이 이아손은 참나무에서 황금양피를 재빨리 걷어냈습니다. 그리스가 동방 세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순간입니다.

[6-15]

이 그림에서는 이아손이 직접 황금양피를 지키는 용의 눈에 마법의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6-16]

용을 제압한 후 나무에 걸려있는 황금양피를 걷는 이아손의 모습입니다. 그림 중앙에 흰 옷을 입은 메데이아가 강조되어 있으며, 왼쪽에는 아르고 호의 돛대들이 보이며 다른 영웅들은 서둘러 배를 출항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르고호로 돌아온 그들은 서둘러 배를 몰아 강줄기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조국을 등지는 파란만장한 메데이아의 운명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6-17]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황금양피를 들고 있는 젊고 멋진 이아손의 동상입니다. 이 위대한 영웅이 그리스로 돌아와서 결국 메데이아를 배신하고 비열한 영웅으로 추락하는데 그 모습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이아손이 중심이 된 아르고 호 55인의 그리스 영웅들이 흑해변의 나라 콜키스에 있는 황금양피를 찾으러 떠나게 되는 경위와 콜키스의 공주인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손에 넣게 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고자 먼 항해를 했던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찾아오는 것은 동방세계에 대한 그리스의 자존심의 회복이며 그리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신화의 뜻 속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메데이아의 사랑과 갈등의 모습입니다. 이아손을 사랑한 그녀는 아버지와 조국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결정하기 까지 그녀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깊은 갈등에 대한 묘사는 현대 심리 소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계속되는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여인의 운명적인 사랑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종결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학습 평가]

- ▶ 황금양을 타고 그리스를 탈출하여 콜키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자는 누구인가요? 답: 프릭소스
- ▶ 그리스 영웅 55인이 타고 콜키스로 떠난 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아르고 호
- ▶ 콜키스의 공주로서 이아손을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인가요? 답: 메데이아

[7주차]

7. 아르고호 원정대-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과 파멸(2)

[학습개요]

- ▶ 조국을 떠나는 메데이아
- ▶ 압쉬르토스를 살해하다
- ▶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의 파멸
- ▶ 메데이아의 돌이킬 수 없는 비극
- ▶ 메데이아, 악녀이고 독부인가

지난 주에 우리는 이아손이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황금양피를 손에 넣은 장면까지 공부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아손에 대한 메데이아의 사랑이 비극적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겪은 운명의 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양피를 탈취하는데 성공한 이아손과 함께 메데이아는 조국을 떠나 아르고 호에 승선하여 그리스로 향합니다. 그렇지만 오빠 압쉬르토스를 중심으로 한 콜키스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자, 그녀는 오빠를 유인하여 이아손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는 메데이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로 돌아온 이아손은 나중에 메데이아를 배신합니다. 그녀는 이아손의 새로운 여자를 죽이고 자신과 이아손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식들까지 죽이는 처참한 비극의 종국으로 치달습니다. 메데이아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과연 메데이아는 악녀이고 독부인가요? 신화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런 의문 속에서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과 파멸> 그 두번 째를 공부 하겠습니다.

7.1 아르고 호가 콜키스를 떠나다

가) 조국을 떠난 메데이아의 파란만장한 운명

● 콜키스 함대가 아르고 호를 추격하다

메데이아가 이아손과 사랑에 빠져 그를 도와 황금양피를 탈취하고, 이아손과 함께

아르고 호에 승선하여 조국을 떠나서 그리스로 향했다는 사실, 그녀의 이런 배신적 행위와 그 행적에 대하여 콜키스인들이 날날이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아이에테스는 아들 암쉬르토스를 선봉장으로 하여 함대를 만들고 아르고 호를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콜키스인들의 배는 함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엄청난 수의 새떼가 소리를 내며 바다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의 분노와 추격의지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7-1]

아르고 호 원정대

● 비열한 영웅 이아손

항로를 잘 알고 있는 암쉬르토스는 지름길을 이용하여 아르고호 보다 앞서 이오니아 해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만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길목을 차단하여 아르고호를 기다리는 형세가 된 것입니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함께 오빠 암쉬르토스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빠를 죽이려는 가혹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메데이아가 악녀라 아니라, 상황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르고 호가 수많은 암쉬르토스의 부하들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섬에 상륙했는데, 그곳의 왕은 아르고 호 영웅들과 암쉬르토스 측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메데이아를 다시 콜키스로 돌려보낼 것에 대하여 협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두고 협상이 벌어지는 것에 참을 수 없었던 메데이아가 분노했고, 급기야 난국을 타파하기 위하여 오빠 암쉬르토스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독부이고 악녀로 묘사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도와 목숨을 걸었고 이제 자신만을 믿고 조국을 떠난 메데이아가 다시 조국으로 되돌려 보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협상에 임하는 이아손이야말로 참으로 비열한 영웅인 것입니다. 살기 위한 메데이아의 절규가 처절할 뿐입니다.

“아이손의 아들이여, 당신은 어떻게 나를 놓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나요? 성공했다고 해서 벌써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이 어려울 때 하신 말씀은 이제 전혀 개의치 않으시나요?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부끄럽게도 나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내 조국과 우리 가족의 명예와 부모를 저버렸지요. 나는 당신의 과업 때문에 혼자 슬픈 물총새 무리에 뒤섞여 멀리서 바다를 쏘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의리를 지키고, 우리 둘이 함께 했던 약속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당신 칼로 내 목을 베어 주세요!”

이 얼마나 절박한 절규입니까? 결국 콜키스로 되쫓겨간다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죽음을 내릴 것이 분명한 이 상황에서 메데이아는 살기 위하여, 이런 협상을 깨뜨리

고 무조건 승리하기 위하여, 오빠 압쉬르토스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 메데이아는 악녀인가

● 압쉬르토스를 유인하여 살해하다

메데이아는 전령을 보내 오빠 압쉬르토스가 뿌리칠 수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칠삭같은 밤이 내리면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 있을 테니 그리로 와서 위대한 이 황금양피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 아이에테스의 궁전으로 가져갈 계책을 함께 강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7-2]

아르테미스 신전

물론 이것은 압쉬르토스를 살해하기 위한 무서운 유인책이었습니다. 이아손은 매복을 한 채 압쉬르토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쉬르토스는 여동생 메데이아의 약속을 믿고 급히 배를 몰아 야심한 밤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데이아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으며 압쉬르토스의 긴장이 풀려있는 순간, 이아손은 매복 장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칼을 휘둘러 단숨에 압쉬르토스를 살해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으로서 무술이 뛰어난 이아손의 기습 공격에 압쉬르토스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피를 토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처절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아폴로니오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아손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며 가까운 매복 장소에서 튀어나왔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고 베일로 눈을 가렸다. 오빠가 칼을 맞고 죽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압쉬르토스는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꼬꾸라졌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피를 두 손으로 막았지만 튀어 오른 피가 옆으로 피신한 동생의 하얀 베일과 옷을 붉게 물들였다.”

[7-3]

드래퍼(Draper)의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투구를 쓰고 있는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쥐고 있으며,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메데이아가 아르고 호의 다른 영웅들과 함께 오빠 압쉬르토스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콜키스 함대에서 불이 나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메데이아에 의하여 압쉬르토스가 유인되어 신전 앞에서 매복하고 있던 이아손의 칼에 맞아 죽은 것

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여 지고 있듯이, 미리 납치되어온 암쉬르토스를 죽여서 사지를 찢어 바다에 뿌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아이에테스의 추격이 지체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에 의한 오빠의 이런 처참한 죽음은 신화가 주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의 하나로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에 따른 메데이아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신화의 근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맹목적 포로, 독부 중 독부인가 아니면 가부장제의 타파를 시도했던 한 여인의 비극이냐 하는 논점은 현대의 신화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 메데이아, 가부장제의 희생자

암쉬르토스가 직접 이끌었던 콜키스 추격대 1진이 궤멸된 후, 흑해를 통해 빠져 나온 추격대 2진의 엄청난 군대가 드레파네 섬에서 아르고호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의 왕인 알키노오스에게 전쟁을 피하고 싶거든 메데이아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 때, 왕비 아레테는 메데이아의 편에 서서 알키노오스 왕에게 메데이아를 절대로 콜키스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메데이아는 다름이 아닌 바로 “폭력적인 아버지의 화를 피해 달아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가부장적 폭군을 피해온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난민이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의 복수가 눈에 뵈는 그 나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데이아는 단순히 사랑에 빠져 나라를 떠난 철없는 여인은 아닌 것입니다.

메데이아도 왕비 아레테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할 때,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아손을 도와준 것은 결코 사랑의 욕정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순간의 잘못이었지만, 그 죄에 대한 아버지의 가혹한 벌 혹은 아버지에게 의한 죽음에 대한 “끔찍한 공포가 엄습해와 도망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아손을 포함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인간들이라는 당신들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의 임무 때문에 나는 곤란에 처했다”, “내가 아이에테스의 손에 들어가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럽게 살해당할 때 신이 가할 복수를 두려워하라”고 하면서 콜키스로 돌아가면 당연히 처형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에 대한 사랑의 포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비운의 여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폭군인 아버지의 최대의 피해자로 전략하게 된 것입니다.

7.2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이 파멸하다

가) 그리스의 이방인 메데이아

●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망명

[7-4]

황금양피를 갖고 금의환향하는 아르고 원정대

[7-5]

아이손이 펠리아스에게 황금양피를 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올코스의 왕 펠리아스는 황금양피를 성공리에 갖고 돌아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이아손에게 약속했었지만, 약속은 물론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국을 떠나온 그리스의 이방인 메데이아는 사랑하는 이아손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아손의 왕권 탈환을 위하여 펠리아스를 죽일 계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펠리아스 궁전으로 가서 펠리아스의 딸들을 불러 놓고 늙은 숫양 한 마리를 토막 내어 물에 끓인 뒤 새끼 양으로 만들어 다시 살려내는 마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펠리아스 딸들에게 아버지 펠리아스를 토막 내어 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젊게 만들어 살려주겠다고 속입니다. 펠리아스의 딸들은 메데이아의 말을 믿고 아버지를 죽여 토막 내었습니다. 메데이아가 토막 난 펠리아스를 다시 살려주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펠리아스는 결과적으로 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펠리아스의 아들 아카스토스가 왕권을 잡자,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하는 수 없이 코린토스로 망명합니다.

[7-6]

죽은 펠리아스 앞에 서 있는 메데이아

나) 메데이아의 돌이킬 수 없는 비극

● 이아손의 배신과 메데이아의 절망

망명지 코린토스에서 일어난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행적 그리고 그들의 처참한 비극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코린토스에 가서 처음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기가 그들 삶의 절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딸 클라우케(Klauke)를 이아손한테 아내로 주겠다고 하고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버리고 그녀와 결혼하면서 부터

그들의 처참한 비극은 시작됩니다. 에우리피데스의 극은 바로 이 시점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메데이아가 클라우케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불쌍한 두 자식들이 남들의 손에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메데이아가 이렇게 광기에 빠진 독부와 악녀가 되는 것은 조국을 떠나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오직 남편 이아손만을 믿고 살아 왔는데, 돈과 권력을 좇아 왕의 딸과 결혼하는 남편 이아손의 배신을 견뎌낼 수 없었던 것이고, 또한 코린토스의 크레온 왕이 메데이아를 코린토스에게 추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메데이아의 비극적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따라 온 자신의 처지를 후회합니다.

“아아 아버지! 아아 고향 도시여! 나는 수치스럽게도
오라비까지 죽이며 당신들을 배신했나이다.”

“고향 도시도 없고 야만족의 나라에서
납치되어 와서 남편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아아, 사랑은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가!”

또한 메데이아는 아르고 호가 콜키스에 왔을 때 이아손을 도와주었던 일을 회상하며 그렇게 지극정성 돕고 사랑했던 이아손이 지금 이렇게 배신하는 것에 치를 떨며, 절망에 빠져 이아손에게 소리칩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그대를 따라
이리로 올 때 고향과 함께 배신했던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가련한 펠리아스의 딸들에게로 가야 하나요?”

오오 제우스여, 왜 그대는 가짜 황금에 대해서는
인간들에게 확실한 징표를 주셨으면서
사악한 인간을 가려낼 수 있는 표시는
사람의 몸에 타고 나도록 해주시지 않았나이까?”

절망에 빠진 메데이아는 크레온이 코린토스를 떠날 말미를 하루 더 연장해 주자, 그 하루 동안,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테나이의 왕 아이게우스(Aigeus)로 부터 자신을 받아들이고 부인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피할 곳이 있다는 자신감에 메데이아는 결국 이아손의 새 부인 클라우케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결국 친자식들도 죽이게 됩니다.

● 이아손의 새 부인 클라우케를 살해하는 메데이아

메데이아는 자식들의 손을 통하여 고운 옷과 황금 관을 신부 클라우케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옷과 장신구들을 몸에 두르면 클라우케는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신부를 만지는 사람도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라고 메데이아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차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조국도 집도 잃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빠를 죽이면서 남편을 따라온 여인이 그 남편의 배신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메데이아의 아이들로 부터 메데이아가 보낸 선물을 받은 클라우케는 처음에는 의심하며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멋진 옷과 장신구에 유혹된 그녀는 그것을 몸에 걸치고 기뻐하는데 그것도 순간,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몸을 비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옷과 장신구에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크레온 왕이 쓰러진 딸의 시신 위에 쓰러져 통곡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며 슬퍼하다가 함께 독이 묻어 딸 옆에서 나란히 누워 절명하였습니다. 약과 마법에 능한 메데이아의 독약에 의하여 부녀가 살해된 것입니다.

● 친자식들을 죽이는 메데이아

이제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자식들이 전한 옷과 장신구에 의하여 크레온 왕과 공주 클라우케가 죽었으니, 그 자식들도 무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메데이아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과연 내가 자식들을 죽여야 하는가’ 메데이아의 갈등의 심리 상태가 에우리피데스의 극에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가련한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큰 희망을 걸었었지. 너희들이 노후에 나를 보살펴 줄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나를 잘 묻어 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달콤한 염려도 사라져 버렸구나!
내가 너희들을 잃고 비참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이 어머니를 그 사랑스런 눈으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 아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느냐, 애들아?
왜 내게 미소 짓느냐, 최후의 미소더냐?
아 아 어떡하지? 애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나는 용기가 꺾이는구나.
아 난 못하겠어. 이전의 계획들은 사라져 버려라!”

이렇게 수없는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고, 갈등과 갈등에 휩싸이다가 결국 메데이아는 결심합니다.

“생모인 내가 애들을 죽일테야!
그건 정해진 운명이며 피할 도리가 없어.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가, 그러나 그곳에서! 이곳에서의 행복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빼앗아 버렸으니까.”

이아손의 배신으로 모든 행복을 빼앗긴 메데이아와 자식들의 불행인 것입니다.

[7-7]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용산 국립 박물관에서 루브르 박물관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바로 이 그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이아손에 대한 보복으로 자식을 죽이는 메데이아의 격노한 모습이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동굴의 어둠과 옷자락의 붉은 색 그리고 피부의 흰색 등의 대비 효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 헬리오스의 수레를 타고 사라지는 메데이아

[7-8]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메데이아

메데이아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손녀입니다. 그녀는 헬리오스가 준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아이들의 시신을 안고 지붕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시신만이라도 달라는 이아손의 요청을 거절하고, 아크로폴리스에 사는 헤라 여신의 성역에 가서 묻어 줄 것이라고 답합니다. 헤라 여신은 정식 결혼의 수호여신이기 때문입니다. 정식 결혼을 파기한 이아손에 대한 여신의 벌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 이아손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소리칩니다. “그대는 당연한 응보로 아르고 호의 파편에 머리가 박살 나 악인답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거예요.” 그 말대로 이아손은 아르고 호 고물 밑에서 잠자다가 배가 낡아 선체 일부가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그 파편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아르고 호를 통해 만났던 이 치명적 사랑의 두 연인, 이제 낡아빠진 아르고 호의 파편으로 이아손이 죽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연인들이네요. 황금양피를 찾아온 그리스의 영웅 이아손의 삶은 이렇듯 비참하게 마감됩니다.

[7-9]

무기와 황금양피를 들고 있는 이아손의 동상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그리스 영웅이 그가 영웅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도와준 부인 메데이아를 배신함으로써 초라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신화가 주는 분명한 교훈일 것입니다.

[7-10]

이 지도는 아르고호의 귀환 항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 오른쪽의 흑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나라 콜키스를 출발한 아르고호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 내륙의 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가 지금의 지중해로 나와서 출발지였던 이올코스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심화 학습]

메데이아, 독부인가 가부장제의 희생자인가

●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보통 에우리피데스는 메데이아를 지독한 악녀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극에서 그녀가 이아손의 새로운 부인을 독약으로 살해하고, 그녀의 자식들까지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에 나오는 메데이아의 대화를 분석하면, 메데이아도 피해자이고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엄청난 고통에 빠진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영웅이라는 이아손은 여기서 매우 초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에우리피데스의 의도일 것입니다. 이아손의 이런 모습은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나우티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아르고 호를 몰고 항해하는 영웅적 성격의 이아손이 황금양피를 탈취하기 위한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메데이아를 만날 때는 매우 교활한 말과 기교로 메데이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결혼이라는 말로 유혹하여 확실하게 황금양피를 가지고 그리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이아손이 메데이아를 배신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진실로 이아손을 사랑하여 조국과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빠를 죽이면서까지 이아손을 쫓아 그리스로 왔지만, 이아손은 자신을 위하여 그야말로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이 점에 와서 생각할 때, 굳이 페미니스트들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비교적 용이하게 메데이아가 남성 중심의 신화 세계에서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에서 메데이아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대화를 몇 가지 인용해 봅시다.

“내 모든 인생이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 남편이 가장 비열한 인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생명과 분별력을 가진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들 여자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예요.”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남편의 배신은 메데이아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자들이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한탄조의 자기 비하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 볼프의 『메데이아』

독일의 여성학자 볼프가 인물들의 독백 형식으로 쓴 『메데이아』에서 메데이아는 콜키스와 코린토스의 두 가부장적 정치권력의 희생자로 그려집니다. 현대 페미니스트 학자인 볼프는 메데이아가 암쉬르토스를 죽였다는가 자식들을 죽였다는가 하는 것은 모두 남성사회가 그녀에게 뒤집어씌운 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신화 담론 자체를 부정하고, 메데이아를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볼프의 이러한 시각은 신화 해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학습 정리]

메데이아는 그리스의 상징이 되어 버린 황금양피를 이아손의 일행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법을 동원하여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조국과 아버지 아이에테스를 배신하고, 그리스 영웅들과 함께 아르고호를 타고 그리스로 도피하였던 것입니다. 흑해를 가로지르고 유럽 내륙의 수로를 이용하여 콜키스 함대의 추격을 뿌리치려 하지만, 결국 오빠 암쉬르토스를 중심으로 한 추격대로부터 앞지름을 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 메데이아는 오빠를 유인하고, 숨어있던 이아손으로 하여금 처참하게 살해토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땅에서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 이아손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 이아손의 새로운 여자를 죽이고, 자신의 두 아들마저 남의 손으로 처단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이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사랑과 파멸>이 던지는 최대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가부장제도의 사회, 남성 중심적 사회에 대하여 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도와주고, 야밤에 아르고호를 타고 조국을 탈출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고통에 빠졌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죽일 수 밖에 없었던 이 가련한 여인의 운명을 우리는 한탄해야 할 것이며, 망명지 그리스에서 믿고 따르는 단 한 사람인 남편 이아손이 자신을 배신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 평가]

- ▶ 이아손에 의해 살해당한 메데이아의 남동생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 압쉬르토스
- ▶ 메데이아가 이아손과 함께 돌아온 그리스 나라 이름은? 답 : 이올코스
- ▶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로서 『메데이아』를 쓴 작가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 : 에우리피데스